

# 『훈민정음』의 자음

이 동 석\*

## I. 서론

훈민정음은 우리의 말소리를 적기 위해 고안된 문자로서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 문자의 예와 발음, 그리고 이에 대한 간단한 운용법이 『훈민정음』 예의(例義)에 소개되어 있으며, 『훈민정음』 해례(解例)에서는 예의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설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세종이 창제한 새로운 글자의 음가와 원리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는 달리 새로 창제된 문자 중 몇몇에 대해서는 아직도 음가에 대한 해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자음의 경우가 특히 그러하다. 이뿐만 아니라 자음과 관련된 예의와 해례의 몇몇 설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석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는 훈민정음에 대한 음운론적인 연구로서 대상을 자음으로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훈민정음의 자음과 관련하여 예의와 해례의 내용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먼저 다룬 후 다음으로 훈민정음의 자음 중 논란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II. 『훈민정음』의 자음 관련 내용

『훈민정음』에서는 새로운 문자를 초성, 중성, 종성으로 분류한다. 이 중 자음에 해당하는 것은 초성과 종성이며, 모음에 해당하는 것은 중성이다.<sup>1)</sup> 본고의 연구 대상은 자음으로서, 본고는 『훈민정음』에서 초성과 종성을 다룬 내용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sup>2)</sup>

『훈민정음』에서 초성과 종성에 대한 음운론적인 설명은 예의, 제자해, 초성해, 종성해, 합자해 등에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가. 예의

- 초성 17자(병서자 포함 23자)의 예와 음가, 종성부용초성, 순경음, 병서나. 제자해
- 초성의 제자 원리, 청탁에 의한 초성 분류, 기본자 선정 원리, 전탁의 음가 및 원리, 순경음의 음가
- 다. 초성해
- 초성의 표기 예
- 라. 종성해
- 종성의 표기 예, 소리의 완급에 따른 성조 차이, 팔종성법, ‘ㅇ’의 음가, 오음(五音)의 완급, 설내입성(舌內入聲) 표기와 음가
- 마. 합자해

- 
- 1) 엄밀히 말하면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라고 해야 하겠지만, 『훈민정음』에서는 ‘聲’과 ‘字’를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는다. 『훈민정음』의 많은 부분이 ‘字’에 대한 설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헌에서는 음운론적인 고려 없이 순수하게 문자라는 개념을 나타낼 때만 ‘字’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듯하다. ‘凡字必合而成音’이 대표적인 예이다.
  - 2) 『훈민정음』에서는 ‘초성, 종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용어로 ‘자음’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훈민정음』의 구체적인 용어를 따를 필요가 있을 때만 ‘초성, 종성’이란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또한 원칙적으로 음소와 문자를 구별하여 지칭하는 것이 옳지만 『훈민정음』이 그렇지 않다 보니 이 책의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논의를 전개할 때 ‘음소’와 ‘문자’를 엄격하게 구별하여 논의를 전개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문자를 지칭할 때 ‘초성자’나 ‘종성자, 받침’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초성’과 ‘종성’으로 용어를 통일하도록 하겠다.

병서 표기, ‘ㅎ’과 ‘ㅇ’의 통용, 반설경음(半舌輕音) 설명

각각의 항목에 대해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몇몇 항목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자들 간에 이견이 존재한다. 본고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예의의 초성자

어제 서문에서는 새로 만든 글자를 28자라 하였다. 이 28자가 예의에서 초성 17자와 중성 11로 제시된다. 다음은 초성 17자에 대한 내용이다.

(2)

△。 ㄱ。 〇。	ㅎ。 ㅁ。	ㄴ。 ㄷ。	스。 ㄹ。 ㅍ。	ㅂ。 ㄴ。 ㅌ。	ㄷ。 ㅍ。 ㅋ。	ㄱ。
半 半 喉 並	喉 並	齒 齒 並	齒 脣 脣 並	脣 舌 舌 並	舌 牙 牙 並	牙
齒 舌 音 書	音 音 書	音 音 書	音 音 音 書	音 音 音 書	音 音 音 書	音
音 音 如 如	如 如 如 如	如 如 如 如	如 如 如 如	如 如 如 如	如 如 如 如	如 如
如 如 欲 洪	虛 挹 邪 戊	侵 慈 卽 彌	漂 步 譬 那	吞 覃 斗 業	快 虬 君	
穰 閭 字 字	字 字 字 字	字 字 字 字	字 字 字 字	字 字 字 字	字 字 字 字	字 字
字 字 初 初	初 初 初 初	初 初 初 初	初 初 初 初	初 初 初 初	初 初 初 初	初 初
初 初 發 發	發 發 發 發	發 發 發 發	發 發 發 發	發 發 發 發	發 發 發 發	發 發
發 發 聲 聲	聲 聲 聲 聲	聲 聲 聲 聲	聲 聲 聲 聲	聲 聲 聲 聲	聲 聲 聲 聲	聲 聲
聲 聲						

예의에서 실제로 문자가 제시된 초성자는 17개이지만, 초성자를 나란히 쓰는 병서자까지 포함하면 총 23자가 된다. 초성자의 배열은 크게 아음(牙音), 설음(舌音), 순음(脣音), 치음(齒音), 후음(喉音), 반설음(半舌音), 반치음(半齒音)으로 되어 있다. 이 칠음(七音) 안에서 각각의 초성자가 다시 전청(全淸), 전탁(全濁), 차청(次淸), 불청불탁(淸不濁)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sup>3)</sup>

3) 전몽수·홍기문(1949: 50)은 초성의 전체 배열 순서를 무성음의 평음, 기음, 경음, 유성음의 통비음(通鼻音), 전음(顛音)으로 보고, 양도(亮度)가 가장 낮은 파음(破音)

다만 후음의 경우에는 차청과 전탁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이는 다른 계열에서 전청자를 나란히 써 전탁자를 만든 것과는 달리 후음의 경우에는 차청자를 나란히 써 전탁자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해례의 제자해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 (3) 전청을 나란히 쓰면 전탁이 됨은 그 전청의 소리가 엉겨 전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후음에서 차청이 (나란히 씌으로써) 전탁이 되는 것은 대개 ‘ㅎ’은 소리가 깊어 엉기지 않으나 ‘ㅎ’은 ‘ㅎ’에 비해 소리가 얇아 엉기어 전탁이 되기 때문이다. (全淸並書則爲全濁。以其全淸之聲凝則爲全濁也。唯喉音次淸爲全濁者。蓋以ㄷ聲深不爲之凝。ㄴ比ㄷ聲淺。故凝而爲全濁也。) <훈민정음 해례 제자해>

전청자인 ‘ㅎ’은 소리가 깊어 엉기지 않고 차청자인 ‘ㅎ’은 소리가 얇아 엉기므로 전청자 대신 차청자인 ‘ㅎ’을 이용하여 전탁자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때 엉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정인승(1940), 허웅(1957: 153)은 이를 된소리의 청각 인상을 표현한 것으로 보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전탁자는 /kk/, /tt/, /pp/와 같이 동일 파열음이 음 연쇄를 이룰 때 음성적으로 경음 [kʰ], [tʰ], [pʰ]가 도출되는 원리를 문자에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ㅎ’은 국어의 음소가 아니며 종성의 위치에서는 주로 이영보래(以影補來)를 응용하여 ‘ㄸ’으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ㅎ ㅎ/의 연쇄가 불가능하다.<sup>4)</sup>

‘ㄸ’에서 ‘ㅎ’은 한자음의 종성에서는 사실상 음절말의 [디]를 의미하며 고유어 표기에서는 후행하는 자음이 경음으로 발음된다는 정보를 나타낸다. 즉, 한자음에서의 ‘ㄸ’은 단순히 [디]를 나타내지만, 고유어에서의 ‘ㄸ’은 /ʈʰ/

에서부터 점차로 구강이 방오라진 양도(亮度)가 가장 높은 음으로 배열된 것으로 보였다. 반면 정우영(2014)는 해례에서의 배열 순서가 운서에서와 같이 ‘전청·차청·전탁·불청·불탁’ 순임을 지적하고 예의에서는 빈칸으로 제시된 전탁자를 연상시키기 위해 청탁의 배열 순서를 바꾼 것으로 보았다.

- 4) ‘이영보래(以影補來)’란 『동국정운』의 서문에 언급된 내용으로 영모(影母)인 ‘ㅎ’으로 ‘來母’인 ‘ㄹ’을 보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종성해’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에 우리 한자음의 ‘ㄹ’ 종성이 중국 한자음으로는 ‘ㄷ’ 종성으로 실현되는 불일치 현상을 인지하고 인위적인 방식으로 중국의 입성자를 표기한 것이다.

로서 ‘ㅎ’이 /ʔ/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sup>5)</sup>

/ʔ/는 자체가 성문 폐쇄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중첩되어 /ʔʔ/가 될 수도 없으며 /ʔʔ/가 되들 /ʔ/과 변별성을 갖지 못한다. ‘ㅎ’이 소리가 깊어 영기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속성을 잘 드러내는 설명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보다 소리가 덜 강한 ‘ㅎ’을 이용하여 전탁자를 만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sup>6)</sup>. 물론 이때 전탁자 ‘ㅎㅎ’의 음가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합용병서를 다룰 때 살펴보도록 하겠다.

(2)에서 보듯이 예의에서는 병서자에 대한 음가를 설명하면서도 정작 해당 문자를 제시하지 않고 그 자리를 빈칸으로 남겨 두었다. 이 때문에 초성자의 음가는 실제로 23개를 제시했으면서도 새로 만든 초성자의 개수는 병서를 제외한 17자로 계산되었다.

이에 대해 김태완(2005)는 전탁자(각자병서)가 당시 국어의 현실음이 아니라 중국의 유성자음의 음가를 나타내 음운 체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았으나, 관형사형 어미 ‘-ㄹ’ 뒤의 경음화 현상을 각자병서로 표기한 예가 많고 당시의 자음 체계에 경음이 존재했으므로, 각자병서가 우리말의 음소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보다는 병서 자체가 이미 만들어진 문자를 이용하여 2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로 만든 문자 목록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한편 ‘ㅇ’의 음가는 /ŋ/으로 추정되며, 현대국어에서는 이 /ŋ/이 초성으로 발음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에서는 ‘ㅇ’을 초성자로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니이다’처럼 상대 높임 표현에서는 ‘ㅇ’이 주로 초성자

5) 이는 ‘ㅎ’의 음가가 /ʔ/라는 설명이 아니다. ‘ㅎ’ 자체는 고유어 표기에서 초성이나 종성 자리에 단독으로 쓰인 예가 없다. 따라서 ‘ㅎ’은 우리말의 음소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다만 종성의 ‘ㅃ’ 표기에서는 ‘ㅎ’을 일종의 부호처럼 사용하여 마치 ‘ㅎ’이 /ʔ/의 발음을 담당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6) 강규선(2001: 100-101)은 성문폐쇄음자를 각자병서하여 ‘ㅎㅎ’으로 만들어도 음가를 나타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지 않은 글자 ‘ㅎ’을 다시 병서하여 ‘ㅎㅎ’으로 만드는 것은 훈민정음 초성 체계에 너무나도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기에 ‘ㅎ’자 병서를 만들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았다.

로 표기되며 명사의 경우에도 ‘방울’과 ‘바울’이 교체되는 등 수의적으로 ‘ㅇ’이 초성으로 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형규(1955:123)는 초성 ‘ㅇ’의 음가를 프랑스의 비모음(鼻母音)과 유사하다고 보았으며, 강진식(1975)는 이와는 다르게 한자음 표기를 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예의에서 ‘ㅇ’의 음가를 ‘業字初發聲’으로 설명한 것과 실제 한자음 표기에서 凝母자의 초성 표기에 ‘ㅇ’을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하면 후자의 해석이 타당해 보인다. 고유어 표기의 경우 다른 자음들과는 달리 ‘ㅇ’의 경우에 연결 표기보다 분절 표기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ㅇ’이 종성으로만 발음된다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sup>7)</sup>

## 2. 終聲復用初聲과 八字可足用

예의에서 초성과 중성에 대한 소개가 다 끝난 후 ‘終聲復用初聲’이라는 설명이 뒤를 잇는다. ‘終聲復用初聲’은 종성은 초성을 다시 사용한다는 뜻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크게 둘로 나뉜다.

첫째는 이 설명을 표기법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sup>8)</sup> 즉, 이 구절을 모든 초성자를 종성 표기에 사용할 수 있다는 표기법 규정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종성해에서 ‘ㄱ, ㅇ, ㄷ, ㄴ, ㅂ, ㅁ, ㅅ, ㄹ’만으로도 종성을 표기할 수 있다고 한 것과 대치되는 설명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때문에 세종이 생각하는 표기법과 해례 편찬자들이 생각하는 표기법이 서로 달랐다는 해석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또는 ‘終聲復用初聲’이 대원칙이지만 백성을 가르치기에 간단하고 쉽게 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八字可足用’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이정호 1975; 김필규 1976). 김형규(1955: 150)는 『용비어천가』에서 모든 초성을 종성으로 표기해 보았다가 불편함을 느껴 『훈민정음』에서 8종성법을 규정하게 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

7) ‘ㅇ’의 음가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다시 다루게 될 것이다.

8) 이와 관련한 논의로는 김윤경(1935), 정인승(1940), 전몽수·홍기문(1949: 68), 이정호(1975: 33) 등이 있다.

다.

‘終聲復用初聲’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이것이 표기법이 아니라 제자(制字)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sup>9)</sup> 곧, 종성자를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자를 종성 표기에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終聲復用初聲’이 표기법이 아닌 제자와 관련된 기술이라는 점은 다음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훈민정음』의 ‘예의’와 ‘해례’ 사이에는 체계적인 대응 관계가 성립하는데, ‘예의’에서 간략하게 다룬 내용을 ‘해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대응 구조를 이루고 있다.

- (4) 가. 종성에 초성을 다시 쓰는 것은 그 움직임으로 양인 것도 하늘이고 멈추어서 음인 것도 하늘이니, 하늘은 실로 음양을 구별하여 주관하고 다스림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終聲之復用初聲者。以其動而陽者乾也。靜而陰者亦乾也。乾實分陰陽而無不君宰也。) <훈민정음 해례 제자해>

나. ‘ㅇ ㄴ ㄷ ㄹ ㅁ ㅂ ㅅ ㅈ’ 여섯 자는 평성, 상성, 거성의 종성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입성의 종성이 된다. 그러나 ‘ㄱ, ㆁ, ㄷ, ㄴ, ㅂ, ㅁ, ㅅ, ㅈ’의 여덟 자로 족히 사용할 수 있다. (所以ㅇ ㄴ ㄷ ㄹ ㅁ ㅂ ㅅ ㅈ 六字爲平上去聲之終。而餘皆爲入聲之終也。然ㄱ ㆁ ㄷ ㄴ ㅂ ㅁ ㅅ ㅈ 八字可足用也。) <훈민정음 해례 종성해>

(4가)는 종성에 초성을 다시 사용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예의’의 ‘終聲復用初聲’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제자해’에 속해 있는 반면 종성의 표기와 관련된 ‘八終聲可足用’은 ‘종성해’에 속해 있어 이 두 내용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終聲復用初聲’에 대한 구체적인 부연 설명이 ‘종성해’가 아닌 ‘제자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終聲復用初聲’이 표기법이 아닌 제자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을 잘 보여 준다.

그런데 정우영(2014)는 기존의 해석과는 다르게 ‘예의’의 ‘終聲復用初聲’을 제자와 표기법의 두 기능을 아우르는 중의적 규정으로 보았다. 이것을

9) 이와 관련한 논의로는 이기문(1963: 24~25), 이성구(1984: 153), 문효근(1986), 강신항(1987: 66), 김민수(1987), 이근규(1987), 최세화(1986), 임용기(1992), 지춘수(1992), 이현희(1997), 이동화(2006: 78), 박종국(2007: 52), 백두현(2009), 이현희 외(2014: 325) 등이 있다.

제자와 관련된 것으로만 해석할 경우 『용비어천가』나 『월인천강지곡』에서 보이는 ‘꺄, 꺄고, 꺄’과 같은 표기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 ‘終聲復用初聲’이 자모 규정 단락과 문자 운용 규정 단락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단락 구분 없이 사용되었다는 점 등이 그 근거다.

‘終聲復用初聲’이 『용비어천가』나 『월인천강지곡』의 표기 근거가 된다는 지적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연철, 분철 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종성에 대해서만 표기 기준을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예에서의 단락 구분 문제도 문자를 나열하여 보여 주는 목록 부분과 문장으로 설명하는 해설 부분을 기준으로 단락을 나누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만약 ‘終聲復用初聲’이 제자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이는 국어의 초성과 종성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결국 현대국어의 개념으로 볼 때 음소적인 차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최세화 1986; 이근수 1995: 109; 송기중 2014).

반면 종성해의 팔종성법은 종성의 위치에서 실제로 발음되는 자음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이러한 인식은 음소 차원이 아닌 음성 차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예의의 ‘종성부용초성’은 음소 차원에서 초성과 종성이 같다고 본 것이고 종성해의 팔종성법은 음성 차원에서 초성과 종성이 다르다고 본 것이다(강신항 1987: 66, 93; 정광 2003).<sup>10)</sup>

그런데 팔종성법을 음성 차원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에 ‘ㅅ’이 음절말에서 제 음가대로 발음이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현대국어처럼 당시에 음절말의 ‘ㅅ’이 [tɕ]로 불파되었다면 실제로 소리가 나지 않는 ‘ㅅ’을 종성에 표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개 중세국어의 음절말 ‘ㅅ’이 지금처럼 불파되지 않고 외파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다루도

10) 다른 논의들과는 다르게 이기문(1972a: 117)은 ‘종성부용초성’은 형태음소적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8종성법은 실용의 편의를 위해 음소적 원리를 택한 것이라고 보았다.



록 하겠다.

이 외에 홍기문(1946a: 40)은 8종성의 제한이 몽고자의 자두(字頭)나 범자의 종성과 유사하다며 다른 몇 가지 특징들과 함께 묶어 이러한 유사성이 우연한 결과가 아닐 것이라고 보았다. 홍기문(1946b: 15)는 ‘終聲復用初聲’이라는 설명이 초성 전부를 종성으로 쓴다는 것인지 초성의 일부만을 종성으로 쓴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보았는데, 아마도 이 설명을 표기법으로 이해했기 때문인 듯하다.

### 3. 자음(초성)의 제자 원리

해례의 제자해에서는 초성자의 제자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5) 정음 28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초성은 무릇 17자이다. 아음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설음 ㄴ은 혀가 윗잇몸에 붙은 모양을 본떴다. 순음 ㄹ은 입의 모양을 본떴다. 치음 ㅅ은 이의 모양을 본떴다. 후음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다. ㅋ은 ㄱ에 비해 소리가 조금 세므로 획을 더하였다. ㄴ과 ㄷ, ㄷ과 ㅌ, ㄹ과 ㄴ, ㅌ와 ㅍ, ㅅ과 ㅈ, ㅈ과 ㅊ, ㅇ과 ㅎ, ㅎ과 ㅎ은 소리로 인해 획을 더하는 뜻이 모두 같으나, 오직 ㅇ은 다르다. 반설음 ㄴ, 반치음 ㄷ 역시 혀와 이의 형상을 본떴으나 그 체를 달리한 것은 획을 더하는 뜻이 없는 것이다. (正音二十八字。各象其形而制之。初聲凡十七字。牙音ㄱ。象舌根閉喉之形。舌音ㄴ。象舌附上腭之形。唇音ㄹ。象口形。齒音ㅅ。象齒形。喉音ㅇ。象喉形。ㅋ比ㄱ。聲出稍厲。故加劃。ㄴ而ㄷ。ㄷ而ㅌ。ㄹ而ㅍ。ㅅ而ㅈ。ㅈ而ㅊ。ㅇ而ㅎ。ㅎ而ㅎ。其因聲加劃之義皆同。而唯ㅇ爲異。半舌音ㄴ。半齒音ㄷ。亦象舌齒之形而異其體。無加劃之義焉。)〈훈민정음 해례 제자해〉

일반적으로 ‘ㄱ, ㄴ, ㄹ, ㅅ, ㅇ’은 상형의 원리로 만든 기본자이고, ‘ㅋ, ㄷ, ㅌ, ㅍ, ㅈ, ㅊ, ㅎ’은 획을 더해 만든 가획자이며, ‘ㅇ, ㄴ, ㄷ’은 모양을 달리해 만든 이체자라고 한다. 그러나 제자해에서는 정음 28자 모두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正音二十八字 各象其形而制之). 기본자뿐만 아니라 가획자와 이체자도 상형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라는 용어는 연구자들이 임의로 이름을 붙인 것일 뿐 『훈민정음』에서 정식으로 사용된 용어가 아니다. 『훈민정음』에는 ‘기본자’라는 용어가 아예 나오지 않으며, ‘가획자’와 ‘이체자’는 ‘加畫, 異其體’라는 제자해의 설명을 연구자들이 용어화한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용어화하는 과정에서 ‘가획 = 가획자’, ‘이체 = 이체자’, ‘상형 = 기본자’라는 공식이 만들어지면서 기본자만이 상형의 원리를 따르는 것으로 잘못 이해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김완진(1983), 박창원(1993), 이성구(1985, 1994), 임용기(1996), 장윤희(2013) 등은 이러한 해석상의 오류를 지적하며 28자에 적용되는 상형의 원리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풀어 나갔다.

먼저 김완진(1983)은 세종 25년의 실록 기록이나 최만리 반대 상소문에 ‘象形’에 대한 언급 없이 ‘古篆’만 언급된 점을 들어 훈민정음이 세종 25년에 창제될 당시에는 ‘字倣古篆’의 원리를 따랐으나 세종 28년에 상형의 원리가 추가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완진(1983)은 ‘象形’을 각 글자들을 특정 한자의 전서체(篆書體)를 본떠 만들었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세종 28년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정인지 후서에서 ‘象形而字倣古篆’이라 하여 ‘象形’과 ‘字倣古篆’을 서로 다른 차원으로 기술하고 제자해에서 ‘象形’의 원리를 매우 정교하게 기술한 것을 보면 전서체의 모방에 의해 각 문자의 구체적인 형태가 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sup>11)</sup>. 무엇보다도 전서체를 모방했다는 설명은 소리가 셀수록 획을 더한다는 가획의 원리와 양립하기가 어렵다.

이와는 달리 박창원(1993)은 조음 기관을 이동부와 고정부로 나누고 상형 방식을 이동부를 상형한 경우, 이동부와 고정부를 상형한 경우, 고정부의 변화 모습을 상형한 경우로 세분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본자인 ‘ㄱ, ㄴ’은 이동부인 혀의 모양만을 본뜬 것이고, 가획자인 ‘ㅋ, ㆁ’은 이동부인 혀의 모

11) 강신항(1987: 83)은 ‘象形’과 ‘古篆’을 분리하여,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는 한자와 마찬가지로 ‘상형’에 있고 이렇게 해서 제자된 자형이 고전과 비슷하게 되었음을 설명한 것으로 보았다.

양과 고정부인 입천장의 모양을 함께 상형한 것이며, ‘ㅌ’은 혀가 붙어 있는 아래의 부분까지 상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석에서도 상형의 원리와 가획의 원리가 양립하기는 어렵다. 추가되는 획이 고정부를 의미한다면 소리가 세질 때마다 고정부를 상형함으로써 [屬]의 자질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하는데, 소리가 센 것과 고정부의 상형 간에는 어떠한 상관 관계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성구(1985: 152-153)는 해례에 나오는 ‘象’에 구체적인 사물을 본뜬다는 뜻 이외에 추상적인 의미를 형상화하는 뜻이 있다면서 28자 전부가 발음 기관 상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아울러 이성구(1994)는 ‘象形’을 ‘取象’과 ‘取義’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고,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기본자는 ‘取象’에 해당하고, ‘屬’의 기준에 따라 획을 더한 가획자는 ‘取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장윤희(2013)는 ‘取象’과 ‘取義’가 배타적으로 구별되는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며 ‘象形’을 ‘取象’과 ‘取義’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임용기(1996)은 가획이나 합성의 방법에 따라 만들어진 글자들이라 하더라도, 기본 글자들의 꼴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이를 상형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고, 장윤희(2013) 역시 28자 모두 1차적으로 상형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그 안에서 2차 원리에 의해 가획자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았다.<sup>12)</sup>

예를 들어, ‘ㄱ’과 ‘ㄷ, ㅌ’ 등은 각각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과 혀가 윗잇몸에 붙은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획만 추가됐기 때문에 상형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흔히 이체자로 불리는 ‘ㅇ, ㄹ, ㅅ’도 상형의 원리를 가지고 있기는 마찬

12) 이성구(1985, 1994), 장윤희(2013) 등은 ‘상형’의 개념을 중성자까지도 포함하여 설명하였지만, 본고는 자음만을 다루기 때문에 범위를 초성자로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한편 가획자에 상형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은 제자해의 결(訣)에서 ‘정음의 제자는 그 모양(象)을 중시하되 소리가 세질 때(屬)마다 획을 더했다(正音制字尙其象 因聲之屬每加畫)’고 한 내용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장윤희 2013).

가지다. 제자해의 다음 설명은 ‘ㄹ, ㄷ’ 역시 상형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잘 말해 준다.

(6) 반설음 ㄹ, 반치음 ㄷ 역시 혀와 이의 형상을 본떴으나 그 체를 달리한 것은 획을 더하는 뜻이 없는 것이다. (半舌音 ㄹ, 半齒音 ㄷ, 亦象舌齒之形而異其體, 無加劃之義焉。)〈훈민정음 제자해〉

위의 설명에서 체가 다르다는 것은 상형 이후의 2차적인 과정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sup>13)</sup> 기본적으로 ‘ㄹ’과 ‘ㄷ’에 혀와 이의 모양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도 상형의 원리를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상형’을 육서법의 하나로 보는 견해도 있다. 육서법의 ‘상형(象形), 지사(指事), 회의(會意), 형성(形聲), 가차(假借), 전주(轉注)’ 중에서 ‘상형’이 바로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유창돈(1966), 안병희(1990), 안명철(2006), 김상태(2012)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 논의는 구체적인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육서법에서 상형의 기제만을 다루지 않고 나머지 ‘지사, 회의, 형성’의 기제들이 훈민정음 28자에 체계적으로 적용되었다고 보는 입장을 취한다. 특히 중성자가 지사나 회의의 기제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5)에서 인용한, 정음 28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는(正音二十八字, 各象其形而制之) ‘제자해’의 설명과 맞지 않는다. ‘제자해’에서는 28자 모두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는데, 이들 논의에서는 이와 다르게 문자에 따라 ‘상형, 지사, 회의, 형성’의 기제가 각각 다르게 작용했다고 본 것이다. 결국 ‘象形而字倣古篆’에서 ‘상형’을 육서의 ‘상형’으로 무리하게 대응시키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3) 강신항(2009: 41)는, 송시대에는 어떤 사물의 근본이나 원리를 ‘體’라 하고 그 체의 작용이나 활용을 ‘用’이라고 했다고 밝히고, 제자해의 설명에서 ‘體’는 자음 글자들의 기본 글자를 말하고 ‘用’은 가획자들을 말하며, 제자해의 설명은 ‘ㄹ’과 ‘ㄷ’은 각각 그 體인 ‘ㄴ’과 ‘ㅅ’에다가 用인 가획을 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박형우(2008)은 훈민정음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은 형태가 없는 소리여서 대상과 글자 간의 시각적인 상관 관계가 있는 육서의 상형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 만약 ‘象形而字倣古篆’에서 ‘象形’을 육서의 하나로 보게 되면 이 설명에서 ‘象形’이 제자 원리를 밝히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백두현(2012) 역시 훈민정음의 상형자는 조음기관의 움직임이나 그 모양을 본뜬 것이라는 점에서 사물의 실제 형상을 본뜬 한자의 상형자와 그 성격이 같지 않다고 보고, 한자 육서법과 훈민정음 제자 원리를 관련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하였다.

이체자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다. 일반적으로 ‘ㅇ, ㄹ, ㅏ’를 이체자로 분류하지만, 정인승(1940), 홍기문(1946a: 33; 1946b: 57), 장윤희(2013) 등은 ‘ㄹ’과 ‘ㅏ’만이 이체의 속성을 갖는 것으로 본다.

정인승(1940)은 『훈민정음』에서 ‘ㅇ’과 ‘ㆁ’ 사이에는 ‘加割之義’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석명(釋明)하고 있다고 하여 ‘ㅇ’을 ‘ㄹ’, ‘ㄷ’과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았다. 홍기문(1946a: 33)는 ‘ㄹ’과 ‘ㄷ’만 이체(異體)의 설치상형(舌齒象形)이라고 보고 ‘ㅇ’은 아음으로서 후(喉)에서 취상(取象)된 것으로 보았으며, 홍기문(1946b: 57)는 ‘ㄹ’과 ‘ㄷ’을 각각 ‘ㄴ’과 ‘ㅅ’의 이체로 보고, ‘ㅇ’은 ‘ㅇ’의 이음(異音)으로 보았다.

또한 장윤희(2013)는 (6)에서 ‘ㅇ’에 대한 설명과 ‘ㄹ, ㄷ’에 대한 설명이 서로 다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들어 이 둘을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이 둘은 구두점에 의해 서로 다른 문장으로 구별되어 있다. 편의상 이 부분만 다시 인용을 하면 다음과 같다.

- (7) ㄱ은 ㄱ에 비해 소리가 조금 세므로 획을 더하였다. ㄴ과 ㄷ, ㄷ과 ㅌ, ㄹ과 ㄴ, ㅌ과 ㅍ, ㅅ과 ㅆ, ㅆ과 ㅈ, ㅇ과 ㆁ, ㆁ과 ㅎ은 소리로 인해 획을 더하는 뜻이 모두 같으나, 오직 ㅎ은 다르다. 반설음 ㄹ, 반치음 ㄷ 역시 혀와 이의 형상을 본떴으나 그 체를 달리한 것은 획을 더하는 뜻이 없는 것이다. (ㄱ比ㄴ。聲出稍厲。故加劃。ㄴ而ㄷ。ㄷ而ㅌ。ㄹ而ㄴ。ㅌ而ㅍ。ㅅ而ㅆ。ㅆ而ㅈ。ㅇ而ㆁ。ㆁ而ㅎ。其因聲加劃之義皆同。而唯ㅎ爲異。半舌音ㄹ。半齒音ㄷ。亦象舌齒之形而異其體。無加劃之義焉。) 〈후민적은 해례 제지해〉

〈표 1〉 46자음의 제자 원리

철음 \ 제자원리	상형자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屬	기타	
아음	ㄱ	ㅋ	ㅇ	
설음	ㄴ	ㄷ, ㅌ		
순음	ㅁ	ㅂ, ㅍ		
치음	ㅅ	ㅆ, ㅊ		
후음	ㅇ	ㅎ, ㅎ		
반설음				ㄹ
반치음				ㄺ

장윤희(2013)은 ‘因聲加劃’에 의한 제자를 설명하는 문장에서 ‘ㅇ’을 다룬 것은 ‘ㅇ’이 가획에 의해 제자된 것이라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고 ‘而唯ㅇ爲異’에서 ‘異’의 주어를 ‘ㅇ’에 담겨 있는 ‘加劃之義’로 보았다. 즉, 다른 가획자들은 ‘聲出稍屬’라는 ‘加劃之義’를 갖는 반면 ‘ㅇ’은 이와는 다른 ‘加劃之義’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에 따라 ‘ㅇ’을 가획자로, ‘ㄹ, ㄺ’을 이체자로 분류한다면, 초성자(자음) 17자의 체계를 위의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sup>14)</sup>

〈표 1〉에서 ‘기본자’라는 용어는 『훈민정음』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가획자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아 기존에 사용하던 개념대로 사용하였다. 『훈민정음』에는 ‘象形, 加劃, 異其體’ 등의 설명이 있을 뿐 ‘상형자, 가획자, 이체자’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체계적인 개념 정리를 위해서는 기존의 논의대로 이들을 용어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획과 관련해서는 가획의 양상과 모양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먼저 가획의 양상을 보면 [屬]에 따라 획을 더하더라도 획을 더하는 양상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지춘수(1964)는 ‘ㄱ, ㅋ’과 ‘ㅅ, ㅆ’을 예로 들며 전자의 [屬]는 유기성을 뜻하지만 후자의 [屬]는 마찰에서 파찰로 넘어가는 것을 뜻한다고 보았다. 金完鎭(1972, 1975)는 이러한 차이를 좀 더 체계화하여 제1

14) 〈표 1〉은 장윤희(2013)의 표를 본고의 논의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단계의 가획은 폐쇄음(ㄷ, ㅂ, ㅈ, ㅊ)을, 제2단계의 가획은 유기음(ㅋ, ㅌ, ㅍ, ㅍ, ㅎ)을 나타낸다고 보았으며, 이성구(1985:153)는 격음화(ㅋ, ㅌ, ㅍ, ㅍ, ㅎ), 무기과열음화(ㄷ, ㅂ), 무기과찰음화(ㅈ), 무성성문음화(ㅊ) 등으로 가획의 양상을 더 세분화하였다.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가획의 모양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金完鎭(1972, 1975)는 순음 계열의 가획이 다른 계열의 가획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순음을 제외한 다른 가획자들은 대개 1차로 획을 더할 때는 위에 가로 획을 더하고 2차로 획을 더할 때는 위에 세로 획을 더하는데, 순음 계열에서는 1차 가획인 ‘ㄱ → ㆁ’에서 가로가 아닌 세로 획을, 그것도 하나가 아닌 두 개를 더하고, 2차 가획인 ‘ㆁ → ㄱ’에서는 세로 획을 더하지 않고 좌우에 두 줄로 가로 획이 돌출된 모양을 취했다는 것이다.

- (8)
- |   |   |   |
|---|---|---|
| ㄱ | → | ㆁ |
| ㄴ | → | ㄴ |
| ㄷ | → | ㄷ |
| ㄹ | → | ㄹ |
| ㅁ | → | ㅁ |
| ㅂ | → | ㅂ |
| ㅅ | → | ㅅ |
| ㅇ | → | ㅇ |
| ㅈ | → | ㅈ |
| ㅊ | → | ㅊ |
| ㅋ | → | ㅋ |
| ㅌ | → | ㅌ |
| ㅍ | → | ㅍ |
| ㅎ | → | ㅎ |

이에 대해 김완진(1975)는 ‘ㆁ’을 ‘ㄱ’에서 위 가로획을 열고 그 안에 가로획을 더한 것으로 보았으며, ‘ㅍ’의 경우에는 ‘ㅂ’에서 아래 가로획을 열고 글자를 옆으로 눕힌 것으로 보았다.<sup>15)</sup> 반면 장영길(2001)은 ‘ㅍ’을 세우면 중성자 ‘ㅂ’와 구별이 잘 안 된다고 지적하였고, 장영길(2005)는 순음 계열이 후음 계열과 유사한 모양을 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순음 계열의 모양을 바꾼 것이라고 하였다. 박창원(1993)은 단혀 있는 입의 상태를 ‘ㄱ’으로 상형하고, 아래위로 퍼지는 입의 모양을 상형하되 좌우의 균형을 고려하여 ‘ㆁ’을, 옆으로 퍼지는 입의 모양을 상형하되 좌우의 균형을 고려하여 ‘ㅍ’을 만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 보면 가획의 양상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15) 이후 김완진(1983, 1984)는 각 문자의 모양을 전서체와 연관시킴으로써 김완진(1975)의 논의를 수정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sup>16)</sup>

#### 4. 청탁에 의한 구별과 기본자 선정

제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소리를 청탁(淸濁)에 의해 전청, 차청, 전탁, 불청불탁으로 구별하였다.

- (9) 또한 말소리의 청탁으로 말하자면, ‘ㄱㄷㅂㅅㅈ’은 전청이 되고 ‘ㅋㅌㅍㅊ’은 차청이 되고 ‘ㄴㄷㅂㅅㅈㅊ’은 전탁이 되고 ‘ㅇ ㄴㅇㅇㄷㅇ’은 불청불탁이 된다. ‘ㄴㅇㅇ’은 그 소리가 가장 세지 않으므로, 차례는 비록 뒤에 있으나 모양을 본떠 글자를 만드는 데는 처음이 된다. ‘ㅅ’과 ‘ㅈ’은 비록 모두 전청이지만 ‘ㅅ’이 ‘ㅈ’에 비해 소리가 세지 않으므로 또한 글자를 만드는 데 처음이 된다. 오직 아음 ‘ㅇ’은 비록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고 소리의 가운데 코로 나오지만 그 소리가 ‘ㅇ’과 비슷하여 운서에서 疑母와 喻母가 서로 혼동되어 쓰일 때가 많으며 이제 또한 목구멍에서 모양을 취하여 아음 문자를 만드는 데 처음으로 삼지 않았다. (又以聲音淸濁而言之。ㄱㄷㅂㅅㅈ 爲全淸。ㅋㅌㅍㅊ 爲次淸。ㄴㄷㅂㅅㅈㅊ 爲全濁。ㅇ ㄴㅇㅇㄷㅇ 爲不淸不濁。ㄴㅇㅇ 其聲最不屬。故次序雖在於後。而象形制字則爲之始。ㅅㅈ雖皆爲全淸。而ㅅ比ㅈ 聲不屬。故亦爲制字之始。唯牙之ㅇ。雖舌根閉喉聲氣出鼻。而其聲與ㅇ相似。故韻書疑與喻多相混用。今亦取象於喉。而不爲牙音制字之始。) 《훈민정음 해례 제자해》

이는 중국의 36자모를 당시의 우리말 자음 체계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제자해에서는 23자모 체계를 갖추게 된다. 36자모와 23자모를 비교해 보면 36자모 체계의 설두음과 설상음, 순중음과 순경음, 치두음과 정치음이 23자모 체계에서 각각 설음, 순음, 치음으로 통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 예를 들어 ‘ㅈ’과 ‘ㅊ’은 모두 2차 가획자이지만, 전자는 가로 획이, 후자는 세로 획이 더해졌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중국 전통 韻書의 36자모〉

七音 清濁	牙	舌頭	舌上	脣重	脣輕	齒頭	正齒	喉	半舌	半齒
全清	見ㄱ	端ㄷ	知ㄷ*	幫ㅁ	非ㅂ	精ㄷ* 心ㄷ*	照ㄷ* 審ㄷ*	影ㅇ		
次清	溪ㅋ	透ㅌ	徹ㄷ*	滂ㅍ	敷ㅍ	清ㄷ*	穿ㄷ*	曉ㅎ		
全濁	群ㄱ	定ㄷ	澄ㄷ*	並ㅁ	奉ㅍ	從ㄷ* 邪ㅅ ㅁ	牀ㄷ* 禪ㄷ*	匣ㅇ		
不清不濁	疑ㅇ	泥ㄴ	孃ㄴ	明ㅁ	微ㅁ			喻ㅇ	來ㄹ	日 ㄷ

〈東國正韻 및 訓民正音의 23자모〉

七音 清濁	牙	舌	脣	齒	喉	半舌	半齒
全清	君ㄱ	斗ㄷ	擎ㅁ	卽ㅅ 戌ㅅ	挹ㅇ		
次清	快ㅋ	吞ㅌ	漂ㅍ	侵ㅍ	虛ㅎ		
全濁	蚪ㄱ	覃ㄷ	步ㅁ	慈ㅅ 邪ㅅ ㅁ	洪ㅇ		
不清不濁	業ㅇ	那ㄴ	彌ㅁ		欲ㅇ	閭ㄹ	穰 ㄷ

침음과 청탁은 음운론적인 개념으로서 새로운 문자를 창제할 때, 특히 가획의 원리를 적용할 때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획을 더하는 바탕이 될 기본자가 필요한데, 소리가 셀 때 획을 더하는 것이 가획의 원리이기 때문에 소리가 가장 세지 않은 말소리에 기본자를 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 원칙대로라면 공명음(불청불탁)인 /n/, /m/, /ŋ/이 기본자로서 각각 ‘ㄴ’, ‘ㅁ’, ‘ㄱ’을 배정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각각 설음과 순음에 속하는 /n/와 /m/는 실제로 기본자로서 ‘ㄴ’과 ‘ㅁ’을 배정받았지만, 아음인 /ŋ/은 소리가 후음의 불청불탁자의 음가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기본자인 ‘ㄱ’을 배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후음의 불청불탁자인 ‘ㅇ’에 가획을 하여 ‘ㅇ’으로 표기하게 되었다.<sup>17)</sup>

17) ‘ㅇ’과 ‘ㅇ’의 소리가 비슷하다고 한 것은 고유어에 대한 설명보다는 중국 한자음에 대한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강신항(1987: 70)은 한자음이 어두에서는 /ŋ/음이

한편 처음에는 공명음(불청불탁)이 없기 때문에 평마찰음인 /s/가 기본자인 ‘ㅅ’을 배정받았다. 성운학의 분류로는 평마찰음과 평파찰음이 모두 처음의 전청에 속하지만, 음운론적으로 마찰음이 파찰음보다 강도가 작기 때문에 평마찰음인 /s/가 기본자 ‘ㅅ’을 배정받고, 평파찰음인 /t͡s/가 가획의 원리에 따라 ‘ㅈ’을 취하게 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ㄹ’과 ‘ㄷ’이 가획의 뜻을 갖지 못한 것은 이들이 반설음과 반치음의 불청불탁자이기 때문이다. 불청불탁음은 소리가 가장 세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셀 때 획을 더한다는 원리를 따르는 가획자로 표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반설음과 반치음이 각각 설음 및 치음과 조음위치를 같이하기 때문에 설음 및 치음 계열의 다른 음과 전혀 다른 모양을 취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반설음 ‘ㄹ’과 반치음 ‘ㄷ’은 각각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과 이의 모양을 반영하면서도 가획의 원리를 반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탁에 의한 분류 중 전탁자의 음가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대체로 중국 한자음에서는 유성음의 음가를 갖지만 우리말에서는 된소리의 음가를 갖는 것으로 해석한다(강신항 1987: 101). 이에 대해서는 각자병서의 음가를 다루면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 III. 개별 자음에 대한 연구

#### 1. 각자병서

각자병서는 같은 자음자를 나란히 쓰는 것으로, 예의에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이 제시되었으나, 해례에서는 (10가)와 같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에 대해

---

소실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며 국어에서도 어두에 ㅇ음이 올 수 없음을 말한 것으로 보았다. ‘ㅇ’의 구체적인 음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서만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였다. 예의의 목록과 해례의 용례를 비교하면 결과적으로 예의의 목록에 ‘oo’이 더 추가된다. 또한 『훈민정음』에서 다루지는 않았으나 (10나)와 같이 일부 문헌에서 ‘u’이 사용되기도 했다.

- (10) 가. 각각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것은 우리말의 ‘·혀[舌]’와 ‘·혓[引]’, ‘과·여[我愛人]’와 ‘과·여[人愛我]’, ‘소·대[覆物]’와 ‘쏘·대[射之]’ 등과 같다. (各自並書。如諺語·혀爲舌而·혓爲引。과·여爲我愛人而과·여爲人愛我。소·다爲覆物而쏘·다爲射之之類。) <훈민정음 해례 합자해>

나. 헛 그티 옷뎃머리에 다박나라 <언해본 훈민정음 15a>

또 責<sup>ㅎ</sup>샤<sup>디</sup> 念<sup>念</sup>이 生<sup>滅</sup>하야 眞<sup>實</sup>흔 性을 일박나라 헛사니 <1461능  
엄경연해2:2a>

각자병서가 예의와 해례의 목록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전자의 목록은 한자음 표기 중심인 반면 후자의 목록은 고유어 표기 중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의에 제시된 ‘ㄱ, ㄷ, ㅁ, ㅂ, ㅅ, ㅇ’은 모두 한자음 표기에 사용된 것들이고, 해례에서 다룬 ‘ㅇ, oo, ㅅ’에 대해서는 모두 고유어인 ‘혓, 과여, 쏘다’가 용례로 제시되었다(김무식 1992b).<sup>18)</sup>

그렇다고 해서 ‘ㄱ, ㄷ, ㅁ, ㅂ’이 고유어 표기에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ㅅ’을 포함하여 이들은 다음과 같이 관형사형 어미 ‘-ㄹ’ 뒤의 경음화 현상과 단어 형성 과정에서의 경음화 현상을 반영하는 표기로 사용되었다.

18) (10가)에 대해서는 이것이 최소대립쌍을 나타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대립된다. 문효근(1978), 송기중(2014) 등은 (10가)가 최소대립쌍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였으나, 김무식(1992b)는 ‘과·여: 과·여’는 엄밀한 의미에서 최소대립쌍이 되지 않으며, ‘·혀: ·혓’의 경우에는 성조 차이뿐만 아니라 품사 차이도 있다고 보았다. ‘과·여: 과·여’는 ‘oo’의 음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최소대립쌍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혀: ·혓’의 경우에는 김무식(1992b)의 지적과는 달리 성조 차이가 없으며 품사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ㅇ’의 음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역시 최소대립쌍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겠다. 최소대립쌍이란 발음을 기반으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표기의 정확한 음가를 모르는 상황에서 표기만을 가지고서 최소대립쌍을 논하기는 어렵다.

- (11) 가. 즐길 꺾시, 오실 꺾, 니를꼬, 이실까  
 나. 갈 떡를, 아를 띠니라, 홀뎌넌  
 다. 니르고져 홀 빼 이셔도  
 라. 求홀 싸름, 아니홀씩, 니길 씨라  
 엄쏘리, 혀쏘리, 조썩고, 슬썩바, 녀썩고, 비썩고, 다썰, 말썩  
 마. 得홀 쩌치라, 오실 찌괴, 滅홀 쥬  
 조썩바, 무썩보되, 슬썩거든, 눈썩스

합자해에서 예를 든 ‘혿’과 ‘쏘다’는 초성자가 기저음을 나타내고, ‘괴여’는 ‘oo’이 형태소의 결합 환경에서 출현하기는 하지만, (11)의 예들과는 형태론적인 환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11)의 예와 합자해의 ‘혿, ㅅ, oo’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11라)의 예와 (10가)의 예에서 ‘ㅅ’이 중복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합용병서를 논하면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표면적으로 볼 때 같은 자음을 나란히 쓰는 각자병서라 하더라도 그 음가를 논할 때는 다음과 같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2) 가. ㅅ, ㅅ, ㅅ, ㅅ, ㅅ  
 나. ㅅ, ㅅ, oo

각자병서의 음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논의가 있었다. 각자병서가 국어의 현실음이 아닌 한자음을 적기 위한 표기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대개 각자병서의 음가를 유성음으로 본다. 이는 각자병서가 표기하는 한자음의 전탁음이 당시에 유성음이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김민수 1953; 김형규 1955: 140).

그러나 각자병서가 (11)의 예와 같이 고유어 표기에도 사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각자병서의 쓰임을 한자어에만 국한하여 그 음가를 유성음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기문(1955)은 우리나라 한자음은 물론 중국에서도 전탁음이 실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변했다고 지적하며 각자병서의 음가를 평음으로 보았다.<sup>19)</sup> 이러한 사정은 『동국정운』의 다음 내용을 통해

19) 한자음에 사용된 각자병서는 일종의 외래어 표기이므로 한자음의 경우와 고유어

서도 알 수 있다.

- (13) 우리말에서 청탁이 구별되는 것은 중국과 다르지 않은데, 한자음(字音)에는 오직 탁성(濁聲)이 없으니 이는 어찌된 일인가, 이것은 청탁이 변한 것이다. (我國語音其清濁之辨 其中國無異 異於字音獨無濁聲 豈有此理 此清濁之變也) 〈東國正韻〉

당시의 우리말 한자음에 탁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초성으로 전탁자(각자병서)를 사용한 것은 이상적인 한자음을 추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한자음의 각자병서 표기는 현실음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외국어 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때 추구한 발음이 유성음이라 하더라도 고유어 표기에 사용된 각자병서의 음가를 당시의 국어 자음 체계에 존재하지 않은 유성음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당시 국어에 유무성 대립이 존재했다고 보지 않는 한 각자병서의 음가를 유성음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약 당시에 음소 차원에서 유무성 대립이 존재하여 각자병서의 음가가 유성음이었다면 어중은 물론 어두에서도 각자병서가 자유롭게 사용되어야 할 텐데, 실제로는 ‘ㅁ’과 ‘ㅂ’ 이외에는 각자병서가 어두에 사용된 예가 없기 때문에 각자병서의 음가를 유성자음으로 보기는 어렵다.

김용경(1975: 41)는 각자병서가 유성음이라면 모음 사이에서 유성음으로 발음되는 ‘ㄱ, ㄷ, ㅂ, ㅈ’과 동일한 발음을 나타내게 된다고 하며, 동일한 발음을 두 가지 계열로 표기하는 것은 큰 모순이므로 각자병서의 음가를 유성음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오히려 정인승(1940), 홍기문(1946a: 55), 전용수·홍기문(1949: 65), 유창균·강신항(1961: 36), 이기문(1963: 89), 강신항(1987: 70, 2009: 47), 지춘

---

의 경우를 구별하여 음가를 추정해야 한다. 송기중(2014)는 각자병서가 표시하는 음성이 중국 운서의 전탁음용이라면 유성음을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당시 국어에 유성음이 부재하였다면 경음을 표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동일 글자를 겹치기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 장자음(長子音) 표기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기문(1955)에서 각자병서의 음가를 평음으로 본 것은 한국 한자음의 경우에 국한된 듯하다. 고유어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수(1992), 김무림(2004: 132) 등은 아래와 같은 해례의 설명을 근거로 각자 병서의 음가를 경음으로 보았다.

- (14) 전청을 나란히 쓰면 전탁이 됨은 그 전청의 소리가 영거 전탁이 되는 것이다. (全淸並書則爲全濁。以其全淸之聲凝則爲全濁也。)〈훈민정음 해례 제자해〉

전청음이 영기어 전탁음이 된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kk/, /tt/, /pp/ 등의 음 연쇄가 음성적으로 경음 [k'], [t'], [p']으로 도출되는 것을 문자에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11)의 예들이 현대국어의 경음 발음에 대응되는 점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오정관(1994)는 국어의 평음, 격음, 경음 중 유성음과 가장 유사한 음이 경음이라는 실험음성학적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유성음인 중국의 전탁자에 대체될 수 있는 국어의 음운이 경음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한다면, 각자병서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서는 유성음을 지향하였지만, 실제 고유어에서의 음가는 경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중 ‘ㅎ, ㄴ, ㅇ’의 음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ㅎ, ㄴ, ㅇ’은 경음 계열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합자해에서 이들의 용례만을 떼어 따로 다룬 만큼 이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음가 추정이 필요하다. 먼저 중세 문헌에서 ‘ㅎ’이 사용된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4) 혀다, 치혀다, 썩혀다/썩혀다, 내혀다, 두르혀다, 니르혀다, 드워혀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ㅎ’은 동사 ‘혀다[ㄹ]’와 ‘치혀다, 두르혀다’ 등의 복합어를 적을 때 사용되었다. 복합어 환경의 ‘혀’가 동사 ‘혀다’에서 유래했다고 본다면 ‘ㅎ’은 기원적으로 오직 한 단어의 발음을 적기 위해 사용된 셈인데, 이러한 경우에 음소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ㅎ’은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1465?)를 마지막으로 문헌 표기에서 자취를 감추고 『원각경언해』(1465)부터는 ‘ㅎ’으로 대체된다.<sup>20)</sup> 이처럼 ‘ㅎ’이

20) 이 문헌의 간행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 ‘ㅎ’이 사용된,

20년 정도 사용되다가 일률적으로 ‘ㅎ’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ㅎ’을 음소 표기로 인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ㅎ’의 구체적인 발음에 대해서는 허뿌리와 여린 입천장 사이를 마찰하는 후음 /X/로 보는 견해(이극로 1932; 전몽수·홍기문 1949: 66; 림종률·김영황 1982: 48), ‘ㅎ’의 된소리로 보는 견해(허웅 1957: 158; 이기문 1961: 110; 김석득 1965; 김무림 2004: 142; 이동화 2006: 157), ‘ㅎ’의 장음으로 보는 견해(권재선 1979: 42), ‘ㅎ’의 이음으로 보는 견해(최범훈 1981: 14; 김무식 1992b; 차재은 2003), ‘헀’의 발음을 연결형의 발음인 [hji]로 보는 견해(김용경 1975: 46), ‘ㅎ’과 ‘ㅋ’의 절충음으로 보는 견해(서정범 1964) 등이 있다.<sup>21)</sup>

허웅(1957: 158), 이기문(1961: 110)은 ‘썰물, 켜다, 일으켜’ 등 ‘ㅎ’이 후대에 /s/ 또는 /kʰ/로 변한 사실을 근거로 ‘ㅎ’의 음가를 경음으로 보았다. 그러나 차재은(2003)은 격음으로 범주화되는 /h/에 [+긴장성이 부여되더라도 이 소리는 결국 격음으로 범주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또한 범언어적으로 [h]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ㅎ’을 경음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ㅎ’의 음가를 장음이나 변이음으로 보기도 어렵다. 초성의 자음을 변별적으로 장음으로 발음하기가 어렵고, 변이음의 경우에는 청각적인 변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헀’의 발음을 [hji]로 보는 것은 모음 ‘ㅣ’와의 연결에 초점을 둔 것인데, 합자해에서 언급했듯이 ‘헀[舌]’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단순히 자음과 모음의 연결형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ㅎ’과 ‘ㅋ’의 절충형으로 보는 입장도 ‘켜다’의 문헌 출현 시기가 17세기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다.

이렇게 볼 때 아마도 ‘ㅎ’은 음소 차원의 구체적인 음가를 나타내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사용된 실험적인 표기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간행 시기가 확실한 문헌 중 가장 연대가 늦은 문헌은 『선종영가집언해』(1464)이다.

21) 차재은(2003)은 ‘ㅎ’의 음가를 [ɕ]로 보았으며, 김무식(1992b)은 ‘ㅎ’의 음가를 변이음 [ɕ']로 보면서도 현대의 구개음화된 음이 아닌 [j]의 성질을 띤 음으로 보았다.

‘u’은 중세 문헌에서 다음과 같은 용례를 보인다. ‘u’은 『능엄경언해』까지만 8회 정도 사용되었고 그 이후의 문헌에서는 종성의 ‘ㄴ’과 다음 음절 초성의 ‘ㄴ’을 분리하여 적는 모습을 보인다.

- (15) 다ㅅ나라 <훈민정음언해본 15a>, 디ㅅ <석보상절 19:14b>, 저ㅅ다 <월인석보 20:56b>, 노ㅅ <월인석보 20:80b>, 글ㅅ <월인석보 23:75a>, 일ㅅ나라 <능엄경언해 2:2a>, 슬ㅅ니 <능엄경언해 2:9b>

위의 예에서 보듯이 ‘u’은 어간 말의 ‘ㅎ’과 어미 초의 ‘ㄴ’이 결합하는 환경에서 출현한다. 이는 ‘ㅎ’이 먼저 [ɪ]로 불파된 후 다시 후행하는 어미 두음 ‘ㄴ’에 동화된 것을 표기한 것으로, 역행 비음화 현상을 반영한다.

이 ‘u’의 사용 기간이 짧고 『훈민정음』에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월인석보』에서 다음과 같이 종성과 초성으로 분리된 표기가 다수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u’ 역시 특정한 단일 음소를 표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16) 전노라 <월인석보 11:53a>, 전논 <월인석보 14:53a> 글는 <월인석보 1:29a>, 일는 <월인석보 20:106b>

이 ‘u’의 음가에 대해서 허웅(1957: 156), 유창균·강신항(1961: 38)은 예사 ‘ㄴ’보다 혀끝을 잇몸에 단단하게 붙이고 ‘ㄴ’보다 좀 오래 막아 두는 소리로서 그 음가를 [n:] 또는 [nn] 정도로 추정하였다. 김용경(1975: 47) 등도 ‘u’을 ‘ㄴ’의 장음으로 보았다. 이는 ‘다ㅅ나라, 디ㅅ’과 같이 기저형의 종성이 ‘ㅎ’ 단독일 때는 타당한 설명이나, ‘글ㅅ, 슬ㅅ니, 일ㅅ나라’와 같이 기저의 종성이 자음군을 이룰 때는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

허웅(1957: 156)은 ‘슬ㅅ니’의 ‘u’도 [n:] 또는 [nn]로 발음되었다고 보았으며, 김용경(1975: 47)은 좀 더 구체적으로 ‘ㄴ’이 종성에서 수의적으로 [ɪ] 또는 [ɪ]로 변이를 일으켜 [ɪ] 뒤에서는 [nn]이 쉽게 발음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ㄴ’의 장음은 사실상 어중에서 종성과 초성이 결합할 때만 가능하므로 그렇게 보기 어렵다.

오히려 ‘글ㅅ’과 ‘글논’이 공존하는 것을 보면 기저의 자음군 종성 ‘ㄴ’은



‘ㄹ’로 자음군단순화를 겪은 것으로 보이므로 ‘글ᄇᆞᆫ’의 실제 발음은 유음화 현상까지 적용된다면 [글ᄇᆞᆫ]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글ᄇᆞᆫ’의 ‘u’은 [n:]이나 [nn]으로 보기 어렵다.<sup>22)</sup>

송철의(1987)은 당시의 표기자들이 [노ᄃᆞᆫ], [노ᄃᆞ], [노ᄃᆞᄃ] 등의 발음을 통해 어간 말 ‘ㅎ’은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혹은 다음 음절의 초성과 결합해서만 실현된다는 인식을 가진 나머지 [딘ᄇᆞᆫ]을 ‘디ᄇᆞᆫ’과 같이 표기하게 된 것으로 보았다. ‘건너다, 든니다’와 같이 동일하게 [u] 발음을 가진 단어라 하더라도 기저형의 종성이 ‘ㅎ’이 아닌 경우에는 ‘u’ 표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을 보면 ‘u’ 표기가 다소 실험적인 표기임을 알 수 있다.

‘oo’은 다음과 같이 용언의 꺾·사동형에서 사용되었다.

(17) 꺾여, 히여, 빅여, 쥐여, 엮미요매, 메웁, 뭉워, 미에느니라

위의 예에서 보듯이 ‘oo’은 어간 말 모음 /i/와 접미사 /i/가 결합하여 /iiV/의 환경이 만들어질 때 사용되었다. ‘oo’의 음가와 관련해서는 긴장된 소리로 보는 견해(이승녕 1961: 40; 문효근 1978)와 장음으로 보는 견해(유창균·강신항 1961: 38) 등이 있으며, 음가가 없으면서도 모음의 긴장된 발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거나(김석득 1965) 특별한 음가가 없는 형태적인 표기로 보기도 한다(서정범 1964; 최범훈 1981: 38; 김무식 1992b; 김동소 1996; 차재은 2003; 김무립 2004: 142).

허웅(1957: 157)은 긴장성과 장음성을 모두 인정하여 ‘여, 요, 예’ 등이 [jɪ], [jɔ], [jɛ]보다 간격을 더 좁히고 다소 길게 내는 소리라고 보았다. 반면 김무식(1992b)는 ‘oo’이 독립된 단어의 어두 환경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형태소의 연결 과정에서 출현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oo’이 구체적인 음가가 없는 형태음소적 표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oo’이 『능엄경언해』(1461) 이후 일률적으로 폐지된 점과 다음과 같이 수

22) 송철의(1987)은 이러한 표기를 통해 오히려 당시에 유음화 현상이 없었을 것으로 보았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글ᄇᆞᆫ’과 ‘글ᄇᆞᆫ’의 공존은 여전히 ‘u’이 다소 인위적인 표기였음을 보여 준다.

의적인 교체를 보이는 점을 보면 ‘oo’ 자체가 특정한 음가를 가졌다고 보  
는 형태적인 표기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서정범 1964).

- (18) 가.受苦 업믹요를 여회여 <월인석보 13:5a>  
 生死를 受苦 업믹유를 사물썌 <월인석보 13:17a>  
 한 업믹음 여회요미 안이오 <월인석보 13:49b>  
 나.느미 소내 쥬여 이시며 <월인석보 2:11a>  
 위소누로 바블 쥬여 머그며 <월인석보 23:89b>

각자병서 중 합지해에서 용례를 다룬 ‘ㅍ’에 대해서는 합용병서를 다룰 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다.

## 2. 합용병서

합용병서는 서로 다른 자음자를 나란히 쓰는 것으로 크게 ㅂ계, ㅅ계, ㅃ계가 있다. ㅂ계 합용병서는 ‘ㅂ’이 선행하고 ㅅ계 합용병서는 ‘ㅅ’이 선행하며, ㅃ계 합용병서는 ‘ㅂ’과 ‘ㅅ’이 연이어 다른 자음자 앞에 선행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 日計: 日, 日, 日, 日  
人計: 人, 人, 人  
月計: 月, 月

합용병서에 대해서는 해례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때의 ‘合用並書’는 원래는 ‘합하여 나란히 쓴다’라는 의미의 서술 표현이었으며, 이를 연구자들이 용어화한 것이다.

- (20) 초성의 두 자나 세 자를 합해 나란히 쓰는 것은 우리말의 ‘·ㅅㅅ地’, ‘ㅍㅍ[雙], ‘뽕[隕]’ 등과 같다. (初聲二字三字合用並書 如諺語·ㅅㅅ爲地. ㅍㅍ爲雙。·ㅍㅍ爲隕之類。) 〈훈민정음 해례 합자해〉

위의 설명에서는 2계, 4계, 8계의 용례를 하나씩 보여 주고 있으나, 이

에 대한 구체적인 음가 설명이 없어 지금까지도 합용병서의 음가에 대해 논란이 많다.

먼저 ㄱ계 합용병서의 음가에 대해서는 자음군으로 보는 견해와 경음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자음군으로 보는 견해는 다시 ‘시, 새’ 등의 음가를 [sk], [sp]로 보는 견해(김윤경 1935)와 [tk], [tp]로 보는 견해(허웅 1957: 152)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훈민정음』의 설명, 외국어 전사 표기, 차차표기, 방언, 고유어 표기 등이 주요한 근거로 언급되었다.

먼저 『훈민정음』의 설명과 관련해서는 합용병서에 대해 별도로 음가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음군에 대한 근거로 삼는다(정인승 1940; 허웅 1957: 146; 강진식 1975). 그러나 음가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도 ‘·ㅅㅅ[塙]’, ‘ㅼㅅ[雙]’, ‘ㅼㅅ[隰]’과 같이 표기와 함께 제시된 의미를 통해 표기와 그 단어의 현실 발음을 대응시키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므로 음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해서 ㄱ계 합용병서의 음가가 자음군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는 ㄴ계 합용병서와 ㅁ계 합용병서도 마찬가지다.

외국어 전사 표기와 관련해서는 허웅(1957: 150)에서 『오대진언』의 진언 표기, 『해동제국기』의 유구어 발음 표기, 『화한삼재도회』, 『조선물어』의 한국어 발음 표기 등을 통해 ㄱ계 합용병서의 음가를 자음군으로 보았다. 강신항(2009: 58)도 『오대진언』의 표기를 바탕으로 ㄱ계 합용병서의 음가를 자음군으로 보았다.

그러나 『오대진언』과 『해동제국기』는 외국어를 전사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고유어 표기와 동일시할 수 없고, 『화한삼재도회』, 『조선물어』는 한국어를 일본어로 전사한 자료로서 중세 문헌이 아닌 근대 문헌이기 때문에 중세국어 표기의 음가를 연구하는 데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없다.<sup>23)</sup>

예를 들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는 고유어 표기와도 많이 다르고 한국 한자음 표기와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훈민정음이 고유어 발음을 적

23)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와 고유어 표기가 매우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의 외국어 전사 표기를 통해 고유어의 음가를 추정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특히 외래어가 아닌 외국어 전사 표기에서는 더욱 그렇다.

기 위한 문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외국어 전사 표기로서의 기능도 발휘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고유어 표기의 음가와 외국어 전사 표기의 음가를 동일 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차자표기와 관련해서는 허용(1957: 150)에서 『삼국사기』의 ‘舒發翰, 舒弗邯’과 ‘角干’이 대응되는 점을 들어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를 자음군으로 보았다. 그러나 ‘舒發/舒弗’이 자음군을 가진 [\*spɪl]이 아니라 2음절어인 \*스블[\*sɒpɪl] 가능성이 높고 이후 모음 탈락에 의해 된소리 발음인 ‘썰’[\*pʰil]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역시 자음군에 대한 절대적인 증거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이기문(1955)은 12세기 자료인 『계림유사』의 ‘女兒曰寶姐’을 통해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를 경음으로 보았다. ‘女兒曰寶姐’에서 ‘寶姐(\*브들)’은 중세국어의 ‘썰’에 대응되는데, \*브들과 ‘썰’의 대응에서는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를 자음군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모음 탈락에 의해 어두 경음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를 경음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sup>24)</sup>

같은 문헌에 나오는 ‘女子勒帛曰實帶’를 보면 ‘實帶’가 중세국어의 ‘실찍’에 대응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때 ‘帶’를 자음군으로 해독하기 어렵고 12세기 이후 자음 /s/가 첨가되어 자음군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계림유사』 자료를 통해서도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를 자음군으로 보기가 어렵다.

『조선관역어』의 다음 예들을 보아도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가 자음군이라는 단서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 (21) 地 大(\*차), 地界 大色直(\*차스치), 夷語 格大論罵(\*까다론 말), 水急 閼迫勒大(\*물색럭다)

비록 외국어의 전사 표기이기도 하나, 위의 예들에서는 초성 /s/가 전사되지 않아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가 경음일 가능성을 높여 준다.

24) ‘女兒曰寶姐’에서 ‘寶姐’은 해독상 ‘寶姐’로 이해해야 한다(강신항 1980: 68).

방언과 관련해서는 허웅(1957: 150)에서 중세국어의 ‘씩’을 평북의 심마니들이 ‘시더구’라고 하는 점을 통해 역시 ㄱ계 합용병서의 음가를 자음군으로 보았으나, 이 역시 ‘시더구’가 더 고행이라면 /\*sitəku/ > /t'ək/과 같이 모음 탈락에 의해 경음이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음군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라 할 수 없다.

반면 고유어 표기에서는 ㄱ계 합용병서의 음가를 경음으로 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먼저 다음과 같은 이표기를 보면 ㄱ계 합용병서의 음가가 경음일 가능성이 높다.

- (22) 가. 그스-〈석보상절 21:22b〉, 〈월인석보 2:35b〉  
       스스-〈법화경언해 7:91a〉, 〈두시언해-초간본 8:66b〉  
       나. 당-〈석보상절 24:15b〉, 〈월인석보 13:59b〉  
       쌍-〈구급방언해 下:66b〉

만약 ㄱ계 합용병서가 자음군이라면 위의 교체형에서 /s/가 첨가되는 것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ㄱ계 합용병서의 음가를 경음으로 본다면 경음화 현상의 적용이 표기에 반영된 것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이기문(1961: 100)은 위의 예들은 훈민정음 창제 후 어두 평음이 경음화한 예로 해석하였다.

다음과 같이 종성의 ‘ㅅ’이 다음 음절로 넘어가 ㄱ계 합용병서를 이루는 현상도 ㄱ계 합용병서의 음가를 경음으로 추정케 한다.

- (23) 가. 깃거<석보상절 11:2b>~기꺼<석보상절 11:34a>  
       나. 숨가락<1459월인석보 8:35b>~손까락<월인석보 7:38b>

위의 예들은 자음군설의 근거로 언급되기도 하고 경음설의 근거로 언급되기도 한다. 허웅(1957: 151)은 종성 ‘ㅅ’의 음가를 내파음 [t']로 보고 위와 같은 혼기(混記)를 설명하기 위해 ‘ㅅ’, ㅅㅅ 등의 음가를 [tk], [t'p]로 보았고, 김용경(1975: 60) 등은 같은 혼기 현상을 설명하면서 ‘ㅅ’, ㅅㅅ, ㅅㅅ 등에서 ‘ㅅ’의 음가를 [s]로 보았다.

그러나 이기문(1961: 99)은 위와 같은 현상이 다음 음절의 초성이 ‘ㄱ, ㄷ, ㄴ, ㅅ’일 때, 즉 초성 합용병서가 가능할 때만 일어난다는 점을 들어 ‘ㅅ, ㅈ, ㅊ’ 등의 음가를 경음으로 추정하였다.

ㅅ계 합용병서 중 ‘ㅅ히’의 ‘ㄴ’은 매우 특이한 모습을 보인다. ‘ㄴ’은 경음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ㅅ계 합용병서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 때문에 ‘ㄴ’의 음가를 자음군으로 보기도 하지만(유창균·강신항 1961: 39; 최세화 1983) ‘ㅅ히’가 『석보상절』 19권에만 단 2회 출현하고 이후에는 『구급간이방』에서 ‘순아히’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ㅅ히’를 일반화된 표기로 보기는 어렵다.<sup>25)</sup> 특히 다른 ㅅ계 합용병서에서는 ‘ㅅ’과 후행 자음 사이에 모음이 첨가되는 예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ㅅ히’에 모음이 첨가되어 ‘순아히’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sup>26)</sup>

다음으로 ‘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ㅈ’은 다른 각자병서와 다른 특징이 있다. 다른 각자병서들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로 관형 구성을 중심으로 도출된 경음을 나타내는 데 비해 ‘ㅈ’은 도출된 경음의 용법과 기저 경음의 용법을 모두 나타낸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24) 가. 쓰대用, 書, 冠, ㅅ대射, ㅅ대作粥, ㅅ대鬪, ㅅ대價, ㅅ대切, ㅅ대欄

나. 혀소리, 우름소리, 껴엤던 불 홀 구필 ㅅ시, 이 經 디닐 ㅅ름

고유어의 기저형에 사용된 각자병서는 ‘ㅈ’과 ‘ㅈ’뿐인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ㅈ’은 사실상 ‘현’이라는 한 단어를 중심으로 표기될 뿐이지만, ‘ㅈ’은 (24가)에서 보듯이 상당히 많은 단어의 기저형으로 표기되었다. 그러면서도

25) 오정란(1988: 91)은 ‘ㄴ’의 ‘ㅅ’을 간극이 좁고 마찰이 약한 [s]로 보기도 했다.

26) 최세화(1983)은 합용병서를 내파적 자음군과 외파적 자음군으로 나누어, 내파적 자음군은 국어음 표기에 사용하여 경음을 나타낸다고 보고, 『오대진언』의 진언 표기에 사용된 합용병서나 『용비어천가』의 여진 지명 표기 ‘닌궐시’에 사용된 ‘ㅅ’ 등 외국어음 표기에 사용된 합용병서는 자음군의 음가를 가진 것으로 보았으며, ‘ㅅ히’의 ‘ㄴ’ 역시 자음군으로 발음된 것으로 보았다. 김성규(1996) 역시 ‘닌궐시’와 같이 외국어 전사를 위한 일회성 표기를 통해 국어에 자음군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으며, ‘ㅅ히’의 ‘ㄴ’은 자음군으로 보았다.

‘ㅍ’은 (24나)와 같이 다양한 관형 구성에서 도출된 경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이처럼 기저 경음과 도출된 경음 모두를 활발하게 표기하는 각자병서는 ‘ㅍ’뿐이다. ‘ㅇ’의 경우에는 기저형 표기에만 사용되었을 뿐 관형 구성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다른 각자병서들이 『원각경언해』부터 폐지되어 문헌에서 거의 사라진 것과는 달리 ‘ㅍ’은 16세기 초기의 문헌에서 다시 부활하여 다른 각자병서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ㅍ’의 이러한 특성은 ‘ㅍ’이 나머지 각자병서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말해 준다.

이와 관련하여 이기문(1961: 100)은 ‘ㅍ’을 기원적으로 전탁 표기, (24가)와 같은 어두 ‘ㅍ’, (24나)와 같은 사이시옷과 다음 단어의 ‘ㅍ’이 합한 표기로 나누고 기원이 다르더라도 이들이 모두 경음으로 발음되었을 것으로 보았다.<sup>27)</sup>

이 중 (24가)의 예들은 어두에서 ‘ㅍ’과 ‘ㅍ’이 교체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에 대해 이기문(1961: 100)은 마찰음의 경음이 가장 미약하여 평음과 경음 사이에서 동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고, 이송녕(1961: 28)은 ‘ㅍ > ㅍ’의 과정이 진행된 것으로 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ㅍ’의 특징에 따라 ‘ㅍ’의 속성을 둘로 나누고 이를 문자 조합의 원리에 따라 기술하면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25) 가. 기저 경음의 ‘ㅍ’: ㅍ+C (C=ㅍ) …… ㅍ계 합용병서

나. 도출 경음의 ‘ㅍ’: C+C (C=ㅍ) …… 각자병서

외견상 ‘ㅍ’은 각자병서로 보이지만, 담당하는 경음의 성격에 따라 위의 분석처럼 각자병서의 원리를 따른 경우와 ㅍ계 합용병서의 원리를 따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을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학계의 의견은 둘로 나뉜다. 김민수(1955)는 ‘ㅍ’이 각자,

27) 이기문(1961: 100)은 (24나) 중에서도 ‘퍼엿던 불홀 구궤 쑈시, 이 經 디닐 싸름’과 같이 관형사형 어미 ‘-르’ 뒤의 ‘ㅍ’을 따로 구별하지 않았지만, 이들과 포함하더라도 ‘ㅍ’의 음가가 공통적으로 된소리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이들 예들을 포함하면 ‘ㅍ’의 음가가 된소리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합용 양 병서에 두루 속할 수 있는 형태라고 지적하면서도 합용병서는 아니라고 하였고, 김용경(1975: 55)는 (24가)의 ‘ㅍ’을 합용병서의 일종으로 보는 것도 무방하나 ‘ㅍ’을 각자병서 중 가장 먼저 음소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김민수(1955)는 ‘ㅍ’의 음가를 경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ㅍ’을 ㅍ계 합용병서로 인정하지 않았고, 김용경(1975: 55)는 다른 각자병서들의 음가를 음소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두에 사용된 ‘ㅍ’이 제일 먼저 음소화했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와는 달리 이기문(1961: 99)은 ‘ㅍ, ㅑ, ㅒ, ㅍ’을 합용병서라 하여 ‘ㅍ’을 합용병서로 분류하였고, 김용경(1975: 32) 역시 ‘ㅍ’이 어두에 출현하는 점을 들어 이를 합용병서로 볼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은정(1986)은 명칭의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ㅍ’이 음운론상으로 같은 음형이라 하더라도 ‘저ㅍㅑ’는 ‘저ㅑㅑ’[ʃɛʔsʰʌβal로, ‘ㅑㅑ’는 [sʰa#ho#tal로 해석할 수 있다며 ‘ㅍ’을 역시 두 종류로 분류하였다. 김성규(1996) 역시 ‘ㅍ’을 ‘ㅍ, ㅑ, ㅒ’과 같은 ㅍ계 병서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동화(2006: 157)은 각자병서의 음가를 경음으로 보지 않으면서도 ‘ㅍ’과 ‘ㅑ’의 음가는 경음으로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자해에서는 (10가)에서 보듯이 ‘ㅑ’의 예를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것(各自並書)이라고 설명했다. 위의 분석대로라면 ‘ㅑ’의 ‘ㅍ’은 ㅍ계 합용병서의 원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는데, 합자해에서는 이를 합용병서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훈민정음』의 ‘各自並書’와 ‘ㅑ用並書’는 말 그대로 문자를 합해 쓴다는 설명인 반면, 현재 우리가 용어로 사용하는 ‘각자병서’와 ‘합용병서’는 특정한 원리를 반영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즉, 『훈민정음』에서는 ‘ㅑ’의 ‘ㅍ’이 문자적으로 같은 ‘ㅑ’을 나란히 쓴 것이기 때문에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쓴 것(各自並書)이라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지만, 현대적인 개념으로 접근할 때는 ‘ㅑ’의 ‘ㅍ’이 기저 경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때의 ‘ㅍ’은 각자병서가 아닌 ㅍ계 합용병서의 원리를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이동석 2013a).



이 체계 합용병서와 관련하여 ‘ㅍ’이 존재하지 않는 점은 의문이다. 이기문(1972a: 125)은 ‘마쯔비, 연쯔고, 조쯔와, 눈쯔스’ 등에서 ‘ㅍ’ 표기는 나타나지만 초성 합용병서로 ‘ㅍ’이 사용되지 않은 점을 주목하며 ‘ㅍ’의 된소리가 어두에 존재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무림(2004: 152-153)은 중세 문헌에서 ‘들 찌비’(들- + -리 # 집 + -이)와 같은 표기가 있음을 지적하고 언중들이 경음 /ㅍ/에 대한 변별적 인식이 없었다면 음성형에서 [들지비]와 [들찌비]를 구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ㅍ’의 표기를 통해 ‘ㅍ’의 된소리가 음소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ㄴ계 합용병서의 음가와 관련해서는 크게 자음군으로 보는 견해와 경음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 후자보다는 전자의 견해가 우세하다. 이에 대해서는 차자표기와 역사비교언어학적인 음운 대응, 합성어의 발음 등이 주요한 근거로 다루어진다.

차자표기와 관련하여 이기문(1961: 81)은 『계림유사』에 수록된 (26가)의 예를 통해 ㄴ계 합용병서의 음가를 자음군으로 보았다. ‘\*ㄴ슬(菩薩)’의 첫음절 모음이 탈락하여 ‘쌀’이 되면서 자음군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26) 가. 白米曰漢菩薩 (\*ㄴ슬)

나. 女兒曰寶姐 (\*ㄴ들)

그런데 (26나)의 ‘\*ㄴ들(寶姐)’에서는 대응되는 중세국어의 어형이 ‘\*쌀’이 아닌 ‘쌀’이어서 첫음절 모음의 탈락에 의해 자음군이 형성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이기문(1961: 81)은 ‘\*ㄴ들 > \*쌀 > 쌀’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았으나, ‘ㅍ > ㅍ’의 변화, 즉 /ps/ > /t/의 변화를 쉽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첫음절의 모음 탈락에 의해 자음군이 형성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차자표기 중 『조선헌역어』의 용례에서 자음군의 흔적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은 자음군설의 반례가 된다(우민섭 1988: 88).

- (27) 米 色二 (\*쌀), 稻 別思 (\*벼씨), 松子 雜思 (\*잣씨), 摘果 刮世大臥那刺 (\*따오나라), 蒸 迭刺 (\*따라)

만약 중세국어 ‘쌀[米], 씨[種], 뽕다[摘], 띠다[蒸]’의 초성 발음이 자음군이었다면 위의 자료에서 그 흔적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조선관역어』에서 ‘米’가 ‘色二’로 차자된 것과 관련하여 이기문(1955)은 ‘쌀’의 ‘ㅅ’이 외파적 요소를 수반치 않은 내파적 p(p-implosif)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어두의 내파적 /p/가 외국인의 청취 전사에서 무시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음군에서 첫 자음이 내파음이라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해석이다. 이 때문에 우민섭(1988: 88) 등은 ㅂ계 합용병서의 음가를 자음군이 아닌 경음으로 추정한다.

역사비교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이기문(1972a: 131)은 ‘뽕-’[彈]와 ‘씨[種]’가 각각 만주어 ‘fithe-’, ‘fusen[蕃殖]’과 음운 대응을 이룬다고 보고 ㅂ계 합용병서의 음가를 자음군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계림유사』의 예에서 보았듯이 첫음절의 모음 탈락이 자음군을 형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합성어의 발음과 관련해서는 다음 단어들에서 ‘ㅅ’이 첨가되는 이유를 ㅂ계 합용병서의 음가가 자음군이라는 점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김윤경 1935; 김형규 1955: 141; 허웅 1957: 147; 이기문 1972a: 131).

- (28) 햅쌀, 좁쌀, 찹쌀, 벼씨, 몯쌀, 몯시, 햅쌀다, 사립쌀, 찹쌀하다, 부릅뜨다, 햅뜨다, 입때, 접때

‘좁쌀’의 경우 /tso/(조)와 /psal/(쌀)의 결합에서 자음군의 첫음 /p/가 앞음절의 종성으로 이동하여 [tsoʔsʰal]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합성어가 형성된 이후 모음 탈락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자음군의 형성 시기를 12세기 이후로 보므로(이기문 1961: 81) 결국 위의 합성어들이 모두 12세기 이후에 형성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게 된다.

그러나 이동석(2004, 2008)은 이들 단어가 12세기 이전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29)와 같이 합성이 이루어진 이후에 모음이 탈락했을

것으로 보았다.

(29) 가. /tco/ + /psʌl/ → [tco.p.sʌl]

나. /tco/ + /\*psʌl/ → /tco.pʌsʌl/ → [tco.p.sʌl]

이렇게 보면 실제 발음은 [tco.p.sʌl]로 동일하지만, (29가)와는 달리 어두 자음군이 어느 단계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농경사회에서 ‘좁쌀, 범씨’와 같은 단어가 12세기 이후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들 합성어의 생성 시기를 밝힐 수 있다면 ㅂ계 합용병서의 음가를 추정하는데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

한편 이동석(2000)은 합성어 ‘츄쌀’을 통해 ㅂ계 합용병서의 자음군이 아닌 경음으로 보았다. 이 단어는 ‘츄’와 ‘쌀’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ㄷ’이 탈락한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ㄷ’의 탈락은 ‘ㄴ, ㄷ, ㅅ, ㅈ, (ㄹ)’과 이들의 격음, 경음 앞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쌀’의 발음을 자음군을 가진 [psʌl]로 보면 ‘츄쌀’에서 ‘ㄷ’이 탈락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쌀’의 발음을 경음인 [sʌl]로 보면 다른 예들에 비추어 ‘ㄷ’의 탈락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ㅂ계 합용병서의 음가를 경음으로 보게 되면 ㅅ계 합용병서와의 차별성이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서정범(1964)는 당시에 평음과 경음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경음을 원음인 평음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ㅂ’을 병기한 것으로 보았다. 평음과 대응 관계가 없는 경음은 ㅅ계 합용병서로 표기하고, 평음과 경음 또는 평음과 격음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ㅂ계 합용병서로 표기했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이동석(2004)는 당시에 ‘좁쌀, 범씨’와 같이 합성어 내부에 ‘ㅂ’이 삽입되는 것처럼 보이는 합성어와 아무런 변화도 수반하지 않는 합성어가 있음을 인식하고, 전자와 같은 특성을 보이는 경음은 ㅂ계 합용병서로, 후자와 같이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 경음은 ㅅ계 합용병서로 구별하여 표기했던 것으로 보았다.

‘ㅂ’계 합용병서로는 ‘ㅂㅂ’과 ‘ㅂㅅ’이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음가를 자음군으

로 보는 견해와 경음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전자는 다시 세 자음이 각각 발음되었다고 보는 견해(강진식 1975)와 ‘ㅂ’은 제 음가대로, ‘ㅅ’과 ‘ㅆ’은 경음으로 발음되었다고 보는 견해(이기문 1961: 111)로 나뉜다.

음가를 자음군으로 보는 근거로는 앞서 ㅂ계 합용병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성어에서 ‘ㅂ’이 첨가된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이기문 1972a: 131). 예컨대 ‘입때(이 + 때)’, ‘접때(저 + 때)’에서 ‘ㅂ’이 첨가되는 이유는 ‘때’의 고형인 ‘뻬’가 ‘이’나 ‘저’와 결합하면서 첫 자음인 ‘ㅂ’이 선행 음절의 종성으로 재구조화된 후 화석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합성어가 형성된 이후 모음이 탈락하였다고 보면 자음군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허웅(1957: 148), 이기문(1972a: 132) 등은 다음과 같이 15세기 문헌의 ‘흔뻬’가 16세기에 문헌에서 ‘흙썸’로 나타나는 점을 자음군의 근거로 삼았다. ‘흔’의 ‘ㄴ’이 ‘ㄹ’이 되기 위해서는 ‘뻬’의 ‘ㅂ’이 제 음가대로 발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30) 흔뻬 > 흙썸 > 함께  
 손뻬 > 숨뻬 > 숨썸

그러나 이 경우도 먼저 합성어가 만들어진 후 모음 탈락이 일어났다고 보면 자음군의 존재가 불분명해진다(이동석 2004, 2008).

이기문(1972a: 132)는 자음군의 음가가 16세기까지 존속된 것으로 보았다. ㅂ계 합용병서와 ㅃ계 합용병서의 표기가 16세기 말까지 혼란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 근거다. 다만, 15세기 중엽에 이미 ‘ㅃ’과 ‘ㅅ’이 다음과 같이 혼란을 보이는데, 이기문(1961: 111; 1972a: 132)는 이를 경음화하는 과정으로 해석하였다. 이기문(1961: 111)은 늦어도 16세기 초에 /p/의 탈락으로 ㅂ계 합용병서가 [k], [t]로 경음화한 것으로 보았다.

- (31) 뻬디다 <석보상절 23:47a> ~ 썸디다 <1447석보상절 19:7b>  
 뻬뻬 <석보상절 6:24b> ~ 숨 <법화경언해 2:15a>

그런데 위의 예들은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ㅂ’이 탈락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경음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ㅂ계 합용병서의 불안정한 표기 양상이 ㅂ계 합용병서의 음가를 추정하는 데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지 좀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3. ‘ㅆ’

‘ㅆ’은 새로 만든 28자 중 초성 17자에 포함되어 있지만, 한자음 외에 고유어 표기에서 초성으로 사용된 예가 없으며, 종성에서도 단독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ㅆ’으로만 표기되었다.

- (32) 가. 갸 닻, 반 갸 사름, 주궐 相, 世間에 낡 격  
 나. 나가싫가, 어루흠다  
 다. 하늬 神靈, 뽕쇠, 뽕 벌에, 하늬뽕

『훈민정음』의 해례에서는 이 ‘ㅆ’과 관련하여 대략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 (33) 가. ㄱ, ㄷ, ㅂ, ㅅ, ㅈ, ㅊ은 전청이 된다. (ㄱㄷㅂㅅㅈㅊ 爲全淸。)〈훈민정음 해례 제자해〉  
 나. 다만 후음에서 차청이 (나란히 씌으로써) 전탁이 되는 것은 대개 ‘ㅆ’은 소리가 깊어 엉기지 않으나 ‘ㅎ’은 ‘ㅆ’에 비해 소리가 얇아 엉기어 전탁이 되기 때문이다. (唯喉音次淸爲全濁者。蓋以ㅆ聲深不爲之凝。ㅎ比ㅆ聲淺。故凝而爲全濁也。)〈훈민정음 해례 제자해〉  
 다. 후음의 ‘ㅇ, ㅆ’에서 느리고 빠름의 대립이 서로 대립되는 것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다. (喉之ㅇㅆ。其緩急相對。亦猶是也。)〈훈민정음 해례 종성해〉  
 라. 초성의 ‘ㅆ’과 ‘ㅇ’은 서로 비슷하여 우리말에서 통용이 가능하다. (初聲之ㅆ與ㅇ相似 於諺可以通用也)〈훈민정음 해례 합자해〉

위의 설명들을 보면 ‘ㅆ’이 특정한 음가를 가진 것처럼 생각된다. 이에 이극로(1932), 정인승(1940), 박병채(1958), 김민수(1959: 7) 등 비교적 초기의 연구에서는 ‘ㅆ’의 음가를 성문음 /ʔ/로 보았다. 김석득(1965)의 경우에

는 초성에서의 음가는 zero로 보면서도 (32)와 같은 예들에서 ‘ㅎ’의 음가를 /ʔ/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허웅(1957: 128), 이기문(1961: 109), 김무식(1992b) 등 이후의 연구에서는 ‘ㅎ’이 후두폐쇄음 /ʔ/를 나타낸다고 보면서도 이를 음소로 인정하지 않고 다음 소리를 경음으로 발음하도록 하는 일종의 부호 또는 형태음소적 표기로 보았다.<sup>28)</sup> 사실 용자례에서 ‘ㅎ’의 용례를 다루지 않은 점만 보아도 ‘ㅎ’이 고유어의 음소를 나타내는 표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ㅎ’이 초성 17자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김형규(1955: 99), 유창균·강신향(1961: 35), 이기문(1963: 33), 오정란(1988: 76) 등에서 체계의 불균형을 피하거나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한 조치로 보았다.

한편 (33라)의 설명이 합자해에 수록되어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합자해의 다른 내용들은 대부분 문자를 합해 쓰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33라)는 초성자의 음가를 비교하는 것이어서 합자(合字)하고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33라)를 굳이 다른 항목들과 관련을 지어 본다면, (33라) 뒤로 언급되는 문자인 ‘ㄹ’과 ‘ㄷ, ㄱ’이 ‘ㅎ’과 함께 고유어 표기에서 사용되지 않는 문자라는 점을 공통점으로 들 수 있다.<sup>29)</sup> 아마도 일반적인 합자(合字)의 내용을 모두 다룬 후 이례적인 발음 및 문자에 대해 부가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모아 쓰는 합자의 한 구성 요소라는 점에서 합자해의 설명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28) 김용경(1975: 70)은 ‘ㅎ’은 초성에, ‘ㅇ’은 종성에 쓰여 이 둘이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고 보고 ‘ㅎ’을 음소 표기로 보았지만, ‘ㅎ’의 음가가 종성에서 단독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ㅎ’과 ‘ㅇ’이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고 보기가 어렵다.

29) 합자해에서는 초성자·중성자·종성자를 합해 쓰는 방법, 초성자를 합해 쓰는 방법, 중성자를 합해 쓰는 방법, 종성자를 합해 쓰는 방법, 한자와 훈민정음을 합해 쓰는 방법, 방점을 찍는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방점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에 위와 같이 ‘ㅎ’과 ‘ㅇ’의 음가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설명 다음에는 반설경음 ‘ㄹ’에 대한 설명, 아동과 변방의 발음인 ‘ㄷ’과 ‘ㄱ’에 대한 설명이 뒤를 따른다.

#### 4. ㅃ

‘ㅃ’은 초성 17자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초기 한글 문헌에서 고유어 표기로 활발하게 사용되었고 해례의 용자례에도 ‘사·ㅃ’과 ‘드·ㅃ’이 용례로 제시되어 있다. ‘ㅃ’은 『능엄경언해』(1461년) 이후 사실상 폐기되면서 중세 문헌에서 일찌감치 자취를 감추었지만, 폐기되기 전까지 높은 사용 빈도를 보였고 이에 대한 연구도 그동안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ㅃ’의 사용 기간이 20년이 채 못 되고 자음 17자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은 ‘ㅃ’을 중세국어의 음소 표기로 인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에 대해 이기문(1963: 101)은 훈민정음 창제 당년이 바로 음소 /ㅃ/의 소실기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서정범(1964)은 훈민정음 창제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 ‘ㅃ’음이 완전히 소실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이동석(2010)은 ‘ㅃ’으로 표기된 단어들이 거의 대부분 형태소 결합 환경에서 출현한다는 점을 들어 ‘ㅃ’을 음소 표기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ㅃ’이 초성 17자에 포함되지 못한 점과 관련하여 이성구(1985: 132), 이동화(2006: 156) 등은 중국 운서의 체계를 따르다 보니 훈민정음의 초성 체계에서는 순중음에 해당되는 ‘ㄴ, ㅍ, ㅅ, ㅈ’만을 제정하고 ‘예의’와 ‘제자해’에서 별도로 순경음 규정을 만들게 된 것으로 보았다.

이와는 달리 홍기문(1946b: 16)은 순경음은 고유어에는 ‘ㅃ’이, 한자음에는 ‘ㅃ, ㅆ’이 사용되어 ‘ㅃ’이 사용되지 않는 실용상 불구의 음이라고 보고, 실용되는 음을 배제할 수도 없고 무용의 자를 나열할 수도 없어 순음에 ‘ㅇ’을 연서한다는 합리적인 편법을 취하게 된 것으로 보았다.

‘ㅃ’은 구체적인 음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데, ‘ㅃ’의 음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문헌 기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34) 가. ‘ㅇ’을 순음 아래에 이어 쓰면 순경음이 된다. (○連書唇音之下 則爲脣輕音。) <훈민정음 예의>

나. ‘ㅇ’을 순음 아래에 이어 쓰면 순경음(입술가벼운소리)이 되는 것은 가벼운 소리로서 입술을 살짝 합하고 목구멍소리가 많기 때문이다. (○連書唇音之下。則爲唇輕音者。以輕音唇乍合而喉聲多也。)〈훈민정음 해례 제자해〉

다. 입술을 합하여 소리를 내면 ‘ㅂ’이 되는데, 이를 순중음이라 하고, ‘ㅃ’을 하려고 입술을 합하려다가 합하지 않고 공기를 불어서 소리를 내면 ‘ㅍ’이 되는데, 이를 순경음이라 한다. 글자를 제정할 때 동그라미를 ‘ㅂ’ 아래 더한 것은 곧 입술을 비워 소리를 낸다는 의미이다. ‘ㅍ’, ‘ㅃ’ 두字母도 역시 이와 같다. (合唇作聲爲ㅂ而曰唇重音爲ㅃ之時唇將合勿合吹氣出聲爲ㅍ而曰唇輕音制字加空圈於ㅂ下者卽虛唇出聲之義也 ㅍㅃㅂ二母亦同)〈변역노걸대박통사 범례〉

(34가)는 예의의 설명으로서 표기 방식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예의에서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처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 순경음에 대한 설명이다.

(34나)는 제자해의 설명으로서 예의의 설명에 발음하는 방법과 음가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허웅(1957: 119) 등은 ‘唇乍合’을 입술의 불완전 폐쇄로 해석하여 ‘ㅍ’의 음가를 마찰음으로 보았다. 대개 여기 에다가 ‘ㅍ’이 유성음 사이에서만 출현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ㅍ’을 유성음으로 해석하는데, 이러한 조합에 따르면 ‘ㅍ’의 음가는 양순유성마찰음 /β/ 이 된다(허웅 1957: 124; 이기문 1961: 103; 김성규 1996 등).

그러나 (34나)의 설명이 워낙 간단하다 보니 이보다는 설명이 조금 더 구체적인 (34다)가 ‘ㅍ’의 음가를 추정하는 데 참고가 된다(김형규 1955: 100; 김용경 1975: 34).

(34다)의 ‘唇將合勿合 吹氣出聲’를 김용경(1975: 36)는 양순마찰음으로 이해하고 ‘ㅍ’이 유성음 사이에서 출현하는 점을 감안하여 ‘ㅍ’의 음가를 양순 유성마찰음 /β/로 보았다. ‘ㅍ’의 음가를 양순유성마찰음 /β/로 보는 견해로는 河野六郎(1935), 이승녕(1948: 26, 1954), 박병채(1957), 유창돈(1958: 83), 허웅(1957: 124), 이기문(1961: 103), 이승녕(1961: 17) 등 다수가 있으며 현재 통설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β]는 부부[pʌβʌ]와 같이 모음 사이에서 유성화된 [β]가 불완전 폐쇄를 통해 수의적으로 실현되는 소리로서(허웅 1957: 124) 우리말에서



는 음소의 자격을 얻지 못한다(장석 2016a). 실제로 이승녕(1954)는 ‘빙’음을 음소가 아닌 변이음 정도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만약 이 [β]가 변이음이었다면 의미 변별 기능이 없는 데다가 청각적인 인식이 쉽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를 다른 변이음과 구별하여 ‘빙’이라는 별도의 문자로 표기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이동석 2013a).

또한 양순과열음 /p/와 양순마찰음 /β/의 유무성 대립 관계가 일반적이지 않은 데다가, 장석(2016a)에 따르면 음소 /b/나 /β/를 가진 216개 언어 중 /β/만을 음소로 가진 언어는 14개(6.5%)뿐이어서 ‘빙’의 음가를 /β/로 보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동석(2013a)는 ‘빙’이 최소대립쌍을 이루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는 달리 김형규(1955: 100)는 (34다)의 설명을 토대로 ‘빙’의 음가를 /w/로 보았는데, 이와 같은 견해로는 小倉進平(1923), 유응호(1946), 김형규(1948), 小倉進平(1953), 김형규(1955), 장향실(2003), 이동석(2004) 등이 있다.

이는 한자음에 사용된 ‘빙’의 음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장향실(2003)은 한자음의 종성에서 ‘빙, 땡’이 [w]나 [u]의 음가를 가졌다고 보았고, 유효홍(2010) 역시 한자음 종성 ‘빙’의 음가를 [w]로 보았다. 일반적으로 한자음 초성 ‘빙’의 음가를 [w]로 추정하지만, (34다)의 설명대로라면 ‘빙’의 음가는 순치음 [w]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김형규 1955: 100) (34다)의 설명이 고유어와 한자음을 아우르는, 순경음에 대한 원론적인 설명(최호섭 2000: 2; 장향실 2003)이라는 점에서 ‘빙’의 음가를 [w]와 연관시키는 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실제로 (34다)에서 입술을 합하려다가 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평순에서 원순으로 가는 동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상태에서 공기를 불어서 소리를 내면 [w]가 되므로 한자음의 발음 등을 고려했을 때 (34다)가 설명하는 발음은 [w]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빙’을 [b]와 [w]의 절충적 표기로 보는 견해도 있다. ㅂ 유지형과 ㅂ 탈락형의 방언 간 차이, 또는 동일 방언 내 차이를 ‘빙’으로 표기했다고 보는 것으로, 남광우(1959), 김용태(1961), 유창돈(1961), 서정범(1964), 럽중

를(1992), 김동소(1996), 조규태(1998), 정우영(1999) 등의 논의가 있다. 이러한 견해는 ‘빙’의 음가를 /w/로 보는 견해와 유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방언 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한편 이동석(2013a, 2013b)는 ‘쉽- + -이’가 ‘수비’로 표기되는 현상을 어간의 활용 /i/가 어미의 모음 /i/를 만나 탈락하는 현상으로 보고 이때 ‘빙’이 [β]나 [∅]와 같은 자음의 음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이동석(2013a)는 현대국어 ‘새우’와 관련이 있는 ‘사비, 사이, 새비’ 계열과 ‘새요, 사요, 사유’ 계열의 공통 어근을 ‘쌔’으로 설정하고 ‘빙’의 음가를 [β]나 [∅]와 같은 자음으로 볼 때는 이들의 파생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며 ‘빙’이 기저의 /p/가 [w]로 약화되거나 탈락하는 현상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외에도 ‘빙’의 음가를 양순유성과열음으로 보는 견해, 양순무성마찰음 /∅/로 보는 견해, 순치유성마찰음 /v/로 보는 견해 등 매우 다양한 음가설이 제기되었다.<sup>30)</sup>

## 5. △

‘빙’과는 달리 ‘△’은 초성 17자에 포함되어 있으며 (35가)와 같이 제자해에서 ‘ㅇ, ㄴ, ㅁ, ㅇ, ㄹ’과 함께 불청불탁자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사용 시기도 짧지 않아 16세기 후반까지 문헌에서 사용되었다.

‘빙’이 주로 형태소 결합 환경에서 표기된 것과는 달리 ‘△’은 형태소 결합 환경은 물론 형태소 내부에서도 표기되었다. 이기문(1972a: 127)은 ‘△’을 『계림유사』 이전부터 내려오는 것과 13세기 이후에 /s/ > /z/의 변화를 입은 것으로 분류하고, 후자의 경우 이러한 변화가 /j/, /ㄷ/, /ㄴ/, /ㅁ/과 모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이 경우에는 ‘hun-sun~han-sun’, ‘du-sun~du-sun’과 같이 두 가지 어형이 공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기문(1972a: 127)은 이를 고형과 신형의 관계로 보지 않고 두 방언형이 공존하는 것으로 해석하

30) ‘빙’에 대한 연구사는 이동석(2013a)에 잘 정리되어 있다.

였다.

이에 대해 장석(2016a)는 수의적인 음성 변화를 일으키는 ‘△’이 음소의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김석득(1965)는 ‘ㅅ’과 ‘△’의 혼용을 ‘만들다 ~ 맨들다’와 같은 형태음소의 수의적 변동으로 보고, 이러한 수의적 변동이 ‘△’이 음소라는 점을 부정하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이 ‘△’의 음가에 대해서는 『훈민정음』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와 관련된 『훈민정음』의 기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35) 가. 또한 말소리의 청탁으로 말하자면, ‘ㄱㄷㅂㅅㅁ’은 전청이 되고 ‘ㅋㅌㅍ’은 차청이 되고 ‘ㄱㄷㅂㅅㅁㅈㅊ’은 전탁이 되고 ‘ㅇㄴㅇㄹㅇㄷ’은 불청불탁이 된다. (又以聲音清濁而言之。ㄱㄷㅂㅅㅁ。爲全清。ㅋㅌㅍㅈㅊ。爲次清。ㄱㄷㅂㅅㅁㅈㅊ。爲全濁。ㅇㄴㅇㄹㅇㄷ。爲不清不濁。)〈훈민정음 해례 제자해〉

나. 반설음 ㄴ, 반치음 △ 역시 혀와 이의 형상을 본떴으나 그 체를 달리한 것은 획을 더하는 뜻이 없는 것이다. (半舌音ㄴ。半齒音△。亦象舌齒之形而異其體。無加劃之義焉。)〈훈민정음 해례 제자해〉

일반적으로 불청불탁자는 유성음의 음가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의 음가도 유성음으로 간주된다.<sup>31)</sup> (35나)에서는 ‘△’에 획을 더한 뜻이 없다고 했는데, 가획은 소리가 세질 때 하는 것이므로 치음의 불청불탁자이면서 가획의 의미가 없는 ‘△’은 같은 치음의 기본자 ‘ㅅ’보다도 약한 소리로 간주된다.

이에 김형규(1955: 114)는 ‘△’의 음가를 혀끝과 잇몸 사이를 ‘ㅅ’보다 좀 더 넓혀서 모음이 안 될 정도로 마찰시켜 내는 소리로 보았다. 양제철(1974:

31) 사실 우리말에서는 유무성 대립이 음소적으로 변별되지 못하고 변이음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유성음(voiced sound)보다는 공명음(sonorant sound)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만, 기존의 성운학 및 중세 음운 관련 논의에서 유성음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해 왔고 이 당시의 음운론적인 대립 관계가 현대국어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유성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김무림(2004: 139-140)은 ‘△’이 불청불탁음으로 분류된 것은 성운학의 영향인 것으로 보고, 日母의 중고음이나 현대의 한어 남방 계열의 음이 비음인 점을 들어 日母가 원래 공명음이었을 것으로 보았다.

53)는 혀가 잇몸에서 떨어지면서 마찰음에 떨림이 겹치게 된다면, 혀와 잇몸 사이가 벌어진 정도에 따라 [ɹ][ʒ][ɻ]로 발음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ㄷ’의 음가를 치경유성마찰음 /z/로 본다(허웅 1957: 131; 이기문 1961: 105; 김석득 1965; 강진식 1975; 김용경 1975: 39 등). 그런데 같은 불청불탁자라 하더라도 ‘ㄴ, ㄹ, ㄷ, ㄹ’은 공명음인 비음과 유음으로서 유성음의 성질을 갖지만, ‘ㄷ’은 장애음인 치경마찰음으로서 ‘ㅅ’과 대립 관계를 이룬다는 점에서 다른 불청불탁자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만약 치경마찰음이 ‘ㄷ’과 ‘ㅅ’으로서 음소 차원에서 유무성 대립을 이룬다면, 다른 계열에서도 음소 차원의 유무성 대립이 존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ㄷ’의 음가를 달리 보거나 절충적인 표기로 해석하는 견해들이 있다.<sup>32)</sup>

절충적인 표기로 보는 논의로는 남광우(1959), 서정범(1964), 김동소(1996) 등이 있다. 남광우(1959)는 한자음 표기를 위해 마련한 ‘ㄷ’을 국어음 표기에 전용(轉用)한 것으로 보고, ‘ㄷ’을 ㅅ 개입 어형과 ㅅ 탈락 어형의 절충 표기로 보았으며, 서정범(1964), 김동소(1996)도 ‘ㄷ’이 방언 간 차이를 절충한 표기로 보았다.

강길운(1992: 313)은 ‘ㄷ’을 치경-경구개유성마찰음 /ʒ/로 보고 그 변이음으로 [ɹ]을 인정하였다. 강길운(1992: 314-315)는 『오대진언』에서 범어의 /dʒ/를 ‘ㄷ’으로 표기한 점, 日母字의 초성이 ‘ㄷ’으로서 모두 /i/나 /j/ 앞에서 사용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손소→손조, 몸소→몸조, 호사→혼자, 거의→거진’과 같은 ‘ㄷ > ㅅ’의 변화나 ‘남진(男人), 삼질(三日)’과 같이 日母字의 초성이 ‘ㅅ’으로 실현되는 점도 ‘ㄷ’이 구개성을 가졌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강길운 1992: 316).<sup>33)</sup>

32) 장석(2016a)는 朱曉農(2003: 11)을 인용하여 /d/나 /z/가 존재하는 211개 언어 중에서 /d/ 없이 /z/만 존재하는 언어는 단 8개뿐(8.5%)이라며, 중세국어에 치경유성파열음 /d/ 없이 치경유성마찰음 /z/만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언어 보편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33) 그러나 이 경우에는 ‘ㅅ’의 조음위치가 언제 치경에서 경구개로 이동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소신애(2012a)는 육진 방언을 바탕으로 ‘ㅅ’이 유성을

강길운(1992: 319)는 ‘ㄹ애[剪], 웃이[使笑], 짓이[使作]’와 같이 ‘ㄷ’ 뒤에서 ‘ㄱ’이 탈락하는 것도 ‘ㄷ’의 음가를 경구개음 /ɟ/로 볼 때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ㄱ’ 탈락이 /i, j/와 같이 구개성 모음이나 반모음 뒤에서 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강길운(1992: 318)는 ‘-어사 > -어야, -고사 > -고야’ 등의 변화를 통해 ‘ㄷ’이 완전 탈락한 후 /j/가 삽입되는 현상을 통해서도 ‘ㄷ’이 구개성을 가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ㄷ’의 음가를 /j/로 보는 논의와 일부 상통하는 면이 있다.

前間恭作(1909: 25)는 ‘ㄷ’의 음가를 중국 日母의 초성 /r/에 가까운 /j/로 보았고, 장석(2016a, 2016b)은 ‘ㄷ’의 음가를 접근음 /j/로 보았다.<sup>34)</sup> 장석(2016a)는 ‘ㅂ’이 모음, [j]활음, ‘ㄷ’, ‘ㄷ’ 뒤에서 ‘ㅂ’으로 약화됨을 지적하며, 비음 뒤에서도 약화되지 못하는 ‘ㅂ’이 이보다 공명도가 낮은 마찰음 뒤에서 ‘ㅂ’으로 약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ㄷ’의 음가를 마찰음으로 보는 데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ㄷ’ 뒤에서의 자음 약화 또는 탈락 현상을 ‘ㄷ’의 구개성과 관련하여 설명한다는 점에서 강길운(1992)와 장석(2016a)는 상통하는 면이 있다. 또한 ‘ㄷ’의 음가를 /j/로 보는 것은 日母의 한국한자음 음가 추정과도 상통하는 면이 있다. 日母의 중국 한자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견이 있지만, 한국 한자음의 초성 ‘ㄷ’의 음가는 대체로 /j/로 추정된다.<sup>35)</sup>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ㄷ’의 음가를 재구한다면 ‘ㄷ’이 치경음보다는 경구개음에 속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

사이에서 [ɹ]로 자유변이를 일으키면서 ‘ㄷ > ㅅ’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자유변이는 의미 변별을 가져 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각적으로 구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34) 장석(2016a)는 접근음 /j/가 모음과 결합하면 활음 /j/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35) 조운성(1998)은 15세기 초 日母의 한자음을 [ɹ]로 보았고, 장석(2014)은 15세기 초에 日母의 한자음이 [ɹ]를 거쳐 탈락하기 시작하였다고 보았다.

## 6. ○

현대국어에서 ‘ㅇ’은 초성에서는 음가가 없고 종성에서는 [ŋ]의 음가를 갖는다. 그러나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고유어 표기에서 ‘ㅇ’이 초성으로만 사용되었고 [ŋ]의 음가를 나타내는 문자로는 ‘ㅇ’이 사용되었다. 『훈민정음』에서는 이 ‘ㅇ’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을 하고 있다.

- (36) 가. ‘ㅇ’은 목구멍소리로서 ‘欲’자의 첫소리와 같다. (○。喉音。如欲字初發聲。) 나. ‘ㅇㄴㅇㅇㄹㅇ’은 불청불탁이 된다. (ㅇㄴㅇㅇㄹㅇ。爲不清不濁。) <훈민정음 해례 제자해>  
 다. ‘ㄴㅇㅇ’은 그 소리가 가장 세지 않으므로 (ㄴㅇㅇ。其聲最不屬。) <훈민정음 해례 제자해>  
 라. ㅋ은 ㆁ에 비해 소리가 조금 세므로 획을 더하였다. ㄴ과 ㄷ, ㄷ과 ㅌ, ㄹ과 ㄴ, ㄴ과 ㄹ, ㅌ와 ㄷ, ㅌ와 ㅌ, ㅇ과 ㅎ은 소리로 인해 획을 더하는 뜻이 모두 같으나, 오직 ㅇ은 다르다. (ㅋ比ㆁ。聲出稍屬。故加劃。ㄴ而ㄷ。ㄷ而ㅌ。ㄹ而ㅇ。ㅇ而ㅌ。ㅌ而ㅌ。ㅌ而ㅇ。ㅇ而ㅎ。其因聲加劃之義皆同。而唯ㅇ爲異。) <훈민정음 해례 제자해>  
 마. 오직 아음 ‘ㅇ’은 비록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고 소리의 기운이 코로 나오지만 그 소리가 ‘ㅇ’과 비슷하여 운서에서 疑母와 喻母가 서로 혼동되어 쓰일 때가 많으며 (唯牙之ㅇ。雖舌根閉喉聲氣出鼻。而其聲與ㅇ相似。故韻書疑與喻多相混用。) <훈민정음 해례 제자해>  
 바. 초성의 ‘ㅇ’과 ‘ㅇ’은 서로 비슷하여 우리말에서 통용된다. (初聲之ㅇ與ㅇ相似。於諺可以通用也。) <훈민정음 해례 합자해>  
 사. 또한 ‘ㅇ’은 소리가 맑고 비어 음절 말에 불필요하니 중성만으로 음을 이룰 수 있다. (且ㅇ聲淡而虛 不必用於終 而中聲可得成音也。) <훈민정음 해례 종성해>

위의 (36가~바)를 보면 ‘ㅇ’이 특정한 음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런데 이 중 (36마)는 운서의 음에 대한 것이고 (36바)는 우리말 음소가 아닌 ‘ㅇ’과 비교를 하고 있어, 이 설명들을 고유어의 음가와 연관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36라) 역시 우리말의 음소가 아닌 ‘ㅇ’과 관련하여 설명이 되어 있고 (36가~다)가 ‘ㅇ’을 포함한 초성 17자의 체계와 관련된 설명이라

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우리말 ‘ㅇ’의 구체적인 음가를 다룬 것인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차재은(2003)은 훈민정음의 후음 체계가 성운학의 성모 체계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만으로 ‘ㅇ’의 음가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36사)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문효근(1978), 서영석(1981)은 ‘聲淡而虛’가 특정한 음가를 나타낸다고 보았으나, 허웅(1957: 158), 이성구(1985: 131) 등에서는 이를 ‘ㅇ’이 음가가 없다는 설명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대해 이기문(1972b: 16)는 ‘ㅇ’을 종성으로 쓸 필요가 없음을 말한 것일 뿐이라고 하여 초성에서의 음가와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초기의 연구들은 대개 위의 설명들을 통해 ‘ㅇ’이 특정한 음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ㅇ’의 구체적인 음가에 대해서는 성대진동음(이극로 1932; 문효근 1978), 후두자음 /ʔ/(이기문 1961: 110), 후두유성마찰음 [ɦ](정인승 1940; 강진식 1975), 후두유성지속음 [ʃ](서영석 1981)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와는 별개로 어중 ‘ㅇ’ 표기를 통해 ‘ㅇ’의 구체적인 음가를 논하기도 한다. 중세국어의 표기 원칙이 연철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분철 표기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통해 ‘ㅇ’이 자음성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다.

- (37) 가. 몰애, 놀애  
       나. 달아(다랴- + -아), 올라(오랴- + -아)  
       다. 알오(알- + -고), 알어늘  
       라. 봉아(브스- + -아), 굶어(그스- + -어)  
       마. 양이(아스 + -이), 열이(여스 + -이)  
       바. 글왈(글발), 슬오니(슬보니)

위와 같은 분철 표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대립을 이룬다. 첫째는 ‘ㅇ’이 특정한 음가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고, 둘째는 ‘ㅇ’이 구체적인 자음의 음가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전자의 견해로는 김완진(1964), 박창원(1996a), 김동소(1996), 차재은(2003), 강신향(2009: 47) 등이 있는데, 이 중 김완진(1964)는 ‘열이’의 ‘ㅇ’

에 별다른 음가를 인정하지 않고 이때의 ‘ㅇ’을 juncture phoneme으로 보았다. 박창원(1996a)는 /sɬ/의 자음 연쇄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엿이’의 ‘ㅇ’이 음가가 없는 것으로 보았는데, ‘엿이’가 ‘엿이’와 교체되는 점을 볼 때 ‘엿이’의 ‘ㅇ’도 음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한편 김동소(1996)은 (37가~다)의 예들을 ㄱ 유지형과 ㄱ 탈락형의 절충 표기로 보거나 탈락된 ‘ㄱ’에 대한 어원적인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았고 (37마)의 예들은 ‘앗이~아가~앗기~아이’의 절충식 표기로 해석하였다.

후자의 견해로는 이기문(1962), 강진식(1975), 김성규(1996) 등이 있다. 이기문(1962), 강진식(1975) 등은 /k/가 유성음 사이에서 /g/가 되었다가 다시 [ŋ]로 약화되었다고 보고 ‘ㅇ’의 음가를 후두유성마찰음 [ŋ]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차재은(2003)은 15세기의 표기법이 예외 없이 음소 표기만을 보이는 것은 아니므로 표기법만을 보고서 ‘ㅇ’의 음가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sup>36)</sup> 오히려 차재은(2003)은 [g]는 연구개유성과열음이고 [ŋ]는 성문 유성마찰음으로 서로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이 달라 음성적 유사성이 없으며, [ŋ]는 /h/의 이음이기 때문에 ‘ㅇ’의 음가가 [ŋ]이 될 수 없다며 ‘ㅇ’의 음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최세화(1986)은 위와 같은 분철 표기를 ‘ㅇ’의 음가와 관련하여 해석하는 대신 오히려 선행 음절의 말음 ‘ㄹ’과 ‘ㄷ’의 음가에 초점을 둔 해석을 내렸다. 최세화(1986)은 ‘ㅇ’이 선행 음절 종성 ‘ㄷ, ㄹ’과의 사이에 음절 경계 기능을 하여 종성 ‘ㄷ’과 ‘ㄹ’이 장자음으로 실현되는 특이한 발음을 표기에 반영한 것으로 보았다.

(37바)와 관련하여 이기문(1972b: 23)는 ‘글왈’은 [wal]의 [w] 때문에 연음이 안 되었고, ‘슬오니’는 [βɫi] [i]의 중간 단계로 [ʷɫi] 내지 [ʷo]가 있었기 때문에 연음이 안 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차재은(2003)은 ‘쇠줄, 활’과 같이 ‘CwV’ 음절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글왈’을 [그왈]로 발음하는 것이 불가능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김경아(1991)은 [β]가 단순히 [w]가 아니라 [ɣw]나 [fiw]로 변한 것으로

36) 차재은(2003)은 실제 음가가 아닌 형태 의식이 반영된 표기로 ‘ㄱ, ㄷ, ㅂ, ㅇ’ 등의 사잇소리 표기와 병서자 ‘ㄴ, ㅇㅇ’ 등을 들었다.



보았으나, 차재은(2003)은 이러한 변화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하였으며, 위와 같은 설명들로는 /w/와 관련이 없는 ‘설이’(<설비)와 같은 표기를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음과 같이 의도법의 ‘-오/우-’는 /i/나 /j/ 뒤에서 ‘-요/유-’로 변하지만 사동법과 피동법의 ‘-오/우-’는 /i/나 /j/ 뒤에서 ‘-요/유-’로 변하지 않는다는 점도 ‘ㅇ’이 자음성을 갖는다는 근거로 언급된다(이기문 1972a: 128). 후자의 경우 ‘ㅇ’이 자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나 /j/의 영향력을 차단한다고 보는 것이다.

(38) 가. 하늘히 밋스물 뛰우시니 <용비어천가 102장>

나. 브리 뛰유미 이 風相이며 <월인석보 11:56a>

그러나 차재은(2003)에서 언급했듯이 중세 문헌에 형태 인식이 반영된 표기가 존재하므로 발음과는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형태를 구분하여 표기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위의 예들에 한해서 ‘ㅇ’의 자음성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의 문자가 복수의 발음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문자 제정의 초기 상황에서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양상이다.

사실 어중의 ‘ㅇ’ 표기는 위의 예들 말고도 다음과 같이 합성어나 어간과 어미 ‘-아/어’의 결합, 형태소 내부에서도 발견된다.

(39) 가. 열아홉, 스물여덟, 것어미, 터럭웃, 한아비, 몬아들, 몬오라비, 마이럼

나. 닐웨, 술위, 물윗, 울월다

다. 모도아, 빅호아, 주어, 두어, 가아, 나아, 시아

(39가)는 합성어 표기에 어중 ‘ㅇ’이 사용된 예인데, 송철의(1987)은 어간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 사이에서 연철 표기를 하는 것과는 달리 이들 환경에서 분철을 한 이유는 어떤 형태론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였다. ‘한아비’가 『용비어천가』에서 ‘하나비’로 표기되는 것을 보면, 합성어의 어중 ‘ㅇ’에 특정한 음가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9나)의 경우에는 ‘ㄱ’ 탈락 여부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39다)의 경우에는 자음이 탈락한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특히 ‘빅호아’〈석보상절 6:10a〉가 다른 문헌에서는 ‘빅화’로 표기되는 등 역시 ‘ㅇ’에 특정한 음가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월인천강지곡』에서는 ‘눈에’, ‘안아’, ‘숨을’, ‘담아’, ‘말을’, ‘죽을’ 등과 같이 불청불탁자들을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연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데, 이때의 ‘ㅇ’에 특별한 음가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예들이 다른 문헌에서는 연결 표기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ㅇ’의 음가에 대한 연구는 주로 (37)과 (38)의 예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39)와 같이 다양한 분철 표기를 모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ㅇ’의 음가 여부를 더욱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 7. ㅈ, ㅊ, ㅍ

현대국어의 ‘ㅈ, ㅊ, ㅍ’는 경구개파찰음으로서 치경마찰음인 ‘ㅅ, ㅆ’와 조음 위치 및 조음 방법이 다르다. 그런데 『훈민정음』 예의에서는 ‘ㅈ, ㅊ, ㅍ’와 ‘ㅅ, ㅆ’를 모두 치음으로 분류하여 지금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기문(1972a: 94)는 옛 문헌에서 중세몽골어의 ‘ǰa[ɟʂa]’, ‘ǰe[ɟʂe]’를 ‘자’, ‘저’로 표기한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기문(1972a: 94)는 [j]를 첨가함으로써 우리말의 치경파열음을 몽골어의 경구개파열음에 가깝게 발음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13세기 국어의 파열음이 경구개음이 아닌 치경음이었으며 근대국어 시기에 이르러 지금과 같이 경구개음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은 다음과 같이 중세국어에서 ‘ㅈ, ㅊ’가 /jV/와 /N/ 앞에서 구별되어 표기된 사실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김석득 1965; 이기문 1972a: 130; 김용경 1975: 50; 김무림 2004: 146).

(40) 𪎭龜皮 ~ 𪎭龜, 𪎭自 ~ 𪎭筋, 𪎭醢 ~ 𪎭燭

현대국어에서는 ‘스, 에스, 썸’의 조음 위치가 /j/와 동일한 경구개인 탓에 상대적으로 약한 /j/가 ‘스, 에스, 썸’ 뒤에서 제 음가를 내지 못하고 탈락하지만, 중세국어 표기를 보면 ‘스, 에스, 썸’ 뒤에서 /j/가 탈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스, 에스, 썸’이 지금과 같은 경구개음이 아니라 치경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과 같은 훈민정음 언해본의 설명을 통해서도 ‘스, 에스, 썸’이 치경음이었음을 알 수 있다.

- (41) ㄱ ㄷ ㄴ ㄹ ㅅ ㅈ ㅊ ㅋ ㆁ 字는 用於齒頭訶고 【이 소리는 우리나라 소리에서 열브니 헛그티 웃넛머리에 다쁘니라】 ㄷ ㄱ ㄷ ㄴ ㄹ ㅅ ㅈ ㅊ ㅋ ㆁ 字는 用於正齒訶느니 【이 소리는 우리나라 소리에서 두터브니 헛그티 아랫넛므유메 다쁘니라】 <훈민정음 언해본>

김무림(2004: 145-146)는 한어의 치두음은 치음(dental)이고 정치음은 경구개음(palatal)임을 지적하고, 위의 설명대로라면 중세국어의 치음이 실제로는 치음과 경구개음의 사이인 치경음(alveolar)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중세국어의 치음으로 ‘스, 썸, 스, 에스, 썸’이 있으므로 ‘스, 에스, 썸’이 현대국어와는 달리 중세국어 시기에는 ‘스, 썸’과 마찬가지로 치경음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박창원(1995)은 김무림(2004: 145-146)와는 달리 치음의 조음 위치를 치경보다 앞에 위치한 ‘이’로 보지만, ‘스, 에스, 썸’의 조음위치가 현대국어의 경구개가 아니라고 본 점은 동일한다.

## 8. 종성 ‘ㅅ’

중세국어 종성 ‘ㅅ’의 음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현대국어와는 달리 [s]로 외파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둘째는 현대국어와 같이 [t]로 불파되었다고 보는 것이다.<sup>37)</sup>

37) 전자의 견해로는 김형규(1955: 153), 허웅(1965: 327-329), 이기문(1972a: 133), 박지홍(1979), 소신애(2008) 등 다수가 있고, 후자의 견해로는 허웅(1957: 183), 지춘수(1964, 1971, 1992), 이동림(1964), 박태권(1964, 1968), 럽종률·김영환(1982:

종성 ‘ㅅ’을 외파음으로 보는 이유는 아래의 (42나)와 같이 종성해에서 받침으로 적을 수 있는 문자로 ‘ㅅ’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42나)에서 제시한 ‘ㄱ, ㄴ, ㄷ, ㄹ, ㅂ, ㅃ, ㅅ, ㅆ’은 모두 당시에 음절 말에서 실제로 발음될 수 있었던 자음으로 추정되는데, 이 목록에 ‘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ㅅ’의 음가가 지금과는 달랐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이다.<sup>38)</sup>

(42) 가. 소리에는 느리고 빠름의 차이가 있어, 평성, 상성, 거성은 그 종성이 입성의 촉급함과 같지 않다. 불청불탁자는 그 소리가 세지 않으므로 음절 말에 사용하면 평성, 거성, 상성에 해당한다. 전청자, 차청자, 전탁자는 그 소리가 세므로 음절 말에 사용하면 입성에 해당한다. ‘ㅇㄴㅇㄷㅇㄹ’ 여섯 자는 평성, 상성, 거성의 종성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입성의 종성이 된다. (聲有緩急之殊。故平上去其終聲不類入聲之促急。不清不濁之字。其聲不屬。故用於終則宜於平上去。全清次清全濁之字。其聲爲屬。故用於終則宜於入。所以ㅇㄴㅇㄷㅇㄹ六字爲平上去聲之終。而餘皆爲入聲之終也。)〈훈민정음 해례 종성해〉

나. 그러나 ‘ㄱ, ㄴ, ㄷ, ㄹ, ㅂ, ㅃ, ㅅ, ㅆ’의 여덟 자로 족히 사용할 수 있다. ‘빛꺠梨花’, ‘열의꺠狐皮’은 ‘ㅅ’ 자로 통용할 수 있으므로 ‘ㅅ’ 자만 쓴다. (然ㅇㄴㅇㄷㅇㄹㅇㅂㅇㅃㅇㅅㅇㅆ八字可足用也。如빛꺠爲梨花。열의꺠爲狐皮。而ㅅ字可以通用。故只用ㅅ字。)〈훈민정음 해례 종성해〉

그러나 (42가)의 내용을 보면 종성 ‘ㅅ’의 음가를 단순하게 외파음으로 보기가 어렵다.<sup>39)</sup> (42가)에 따르면 평성, 상성, 거성은 종성이 촉급하게 끝나지 않으나 입성은 종성이 촉급하게 끝난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종성

64) 최세화(1983, 1986), 서병국(1984: 40), 이은정(1986), 김동소(1996), 김무림(2004: 128-129), 김유범(2009), 이동석(2014) 등이 있다.

38)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그동안 다루어진 논의들을 일일이 다루기에는 지면 관계상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종성 ‘ㅅ’의 음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훈민정음』의 기술 내용에 대한 해석 문제만을 다루도록 하겠다.

39) (35가)는 소리의 완급에 대해, (35나)는 표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두 내용은 『훈민정음』의 종성해에서 연이어 나오는 내용으로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35나)를 바탕으로 종성 ‘ㅅ’의 음가를 추정하였으나, (35가)와 (35나), 그리고 뒤 이어 제시할 (36)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올바른 해석을 내릴 수 있다.

의 축급함에 대해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sup>40)</sup>

허용(1965: 330), 강진식(1975) 등은 입성의 본질은 모음을 빨리 끊는 데 있다고 보고 입성에 속하는 종성 ‘ㅅ’은 무성음으로서 마찰음이 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허용(1965: 330)는 입성과 비입성의 대립을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으로 보았다.

그러나 최세화(1986)은 종성의 유무성이 모음의 장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잉여적 특징일 뿐 성조적 가치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입성의 본질적 특성이 종성의 축급성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성 ‘ㅅ’이 마찰음 [s]로 발음된다면 입성이 될 수 없고, 종성 ‘ㅅ’이 다른 불파음 ‘ㄱ, ㄷ, ㅂ, ㅍ, ㅎ’ 등과 함께 사잇소리 표기로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종성 ‘ㅅ’을 외파음이 아닌 불파음으로 보았다.

이러한 해석은 이미 지춘수(1964), 이은정(1986) 등에서 이루어졌다. 지춘수(1964)는 ‘ㄱ, ㄷ, ㅂ, ㅎ’ 등이 사잇소리 표기로 사용된 점을 언급하고 이들 문자 사용의 근거를 아래에서 제시될 (43)의 완급 설명에서 찾았다. 그리고 사잇소리 표기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축급함이라 보고 이들과 같은 기능으로 사용된 ‘ㅅ’의 음가를 불파음으로 보았다. 이은정(1986) 역시 ‘합자해’의 ‘入聲促而塞’이나 『강희자전』의 ‘入聲短急而收藏’ 등의 설명을 통해 입성이 운말이 축급하게 폐쇄되는 음절을 이루는 것으로 보았다.

박창원(1984)도 종성 ‘ㅅ’이 입성이 된다는 점과 ‘ㅅ, ㅆ’이 ‘ㅅ’으로 중화되는 점을 들어 종성 ‘ㅅ’의 음가를 불파음으로 보았다. 그러나 박창원(1984)는 15세기에 종성 ‘ㅅ’이 비음화된 표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ㅅ’의 불파화가 덜 완성되어 음절 말의 특수한 환경에서는 외파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중세국어에서 종성 ‘ㅅ, ㅆ’가 ‘ㅅ’로 중화되었다고 보는 것은 (42나)의

40) 종성 ‘ㅅ’의 음가 문제를 다룰 때에는 기본적으로 종성해의 기술 내용에 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초기 연구를 비롯한 많은 연구에서 의외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찾아 보기 힘들다. 종성 ‘ㅅ’의 음가 문제는 국어 음운사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 그동안 『훈민정음』의 기술 내용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설명을 근거로 한다. 그런데 ‘쫘다’의 활용형인 ‘쫘- -좁- -아’는 중세 문헌에서 ‘죤즈바’, ‘쫘즈바’, ‘조쫘바’로 혼기되는 양상을 보여 ‘ㅈ, ㅊ’가 ‘ㅅ’로 중화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혼기 현상은 종성 ‘ㅅ’의 음가가 [s]가 아니라 [t]라는 점을 뒷받침해 준다(지춘수 1992; 김무림 2004: 129). 음절 말에서 ‘ㅈ’이 ‘ㅅ’과 ‘ㅊ’으로 교체 표기되었다는 것은 음절 말에서 ‘ㅅ’과 ‘ㅊ’의 발음이 변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43) 오음의 느리고 빠름은 또한 각각 대립을 이룬다. 아음의 ‘ㅇ’과 ‘ㄱ’이 대립을 이루어 ‘ㅇ’을 급하게 소리 내면 변하여 ‘ㄱ’이 되어 빠르고 ‘ㄱ’을 천천히 소리 내면 변하여 ‘ㅇ’이 되어 느리다. 설음의 ‘ㄴ, ㄷ’, 순음의 ‘ㄹ, ㅂ’, 치음의 ‘ㄷ, ㅅ’, 후음의 ‘ㅇ, ㅎ’에서 느리고 빠름의 대립이 서로 대립되는 것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다. (五音之緩急。亦各自爲對。如牙之ㅇ與ㄱ爲對。而ㅇ促呼則變爲ㄱ而急。ㄱ舒出則變爲ㅇ而緩。舌之ㄴㅇ。脣之ㄹㅇ。齒之ㄷㅇ。喉之ㅇㅎ。其緩急相對。亦猶是也。)〈훈민정음 해례 종성해〉

종성해의 뒷부분에서는 위와 같이 오음의 완급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춘수(1964)는 위의 설명이 이론적인 체계를 중시하면서 실제 음성적인 사실을 무시한 면이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앞에서 ‘ㅇ’을 종성으로 쓸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ㅇ’과 ‘ㅎ’이 종성에서 대립을 이룬다고 하였고, ‘빚긔’, ‘열의긔’와 관련하여 ‘ㄷ, ㅈ, ㅊ’을 모두 ‘ㅅ’으로 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ㄷ’과 ‘ㅅ’이 종성에서 대립을 이룬다고 모순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춘수(1964)는 이를 이론적인 체계를 중시한 설명으로 보고, 이와 같이 이론적인 체계를 중시한 나머지 ‘ㅅ’과 ‘ㅊ’이 실제로는 종성에서 중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구별하여 적게 된 것으로 보았다. ‘ㅊ’과 ‘ㅅ’이 설음과 치음으로 서로 계열이 달랐기 때문에 이 둘을 실제 발음에 맞게 ‘ㅊ’으로 통합하여 적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sup>41)</sup>

41) 럽종률·김영항(1982: 64), 최세화(1986), 이은정(1986), 김무림(2004: 128)도 종성 ‘ㅅ’과 ‘ㅊ’의 음가가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구별하게 된 원인이 계열별로 입성자를 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이은정(1986)은 음절말 ‘ㅊ’은 설단치경폐쇄음 [tʰ], 음절말 ‘ㅅ’은 설첨치배폐쇄음 [tʰ]로 보아 두 음이 이론적

지춘수(1964)는 또한 ‘ㄴ’과 ‘ㄷ’의 경우에는 같은 계열 내에서 대립을 이루기 때문에 /ㄷㄴ/을 비음화된 ‘ㄴㄴ’으로 적을 수 있었지만, /ㅅㄴ/의 경우에는 실제로 [ㄴ니]로 발음되더라도 ‘ㄴ’과 ‘ㅅ’이 서로 다른 계열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ㄴㄴ’으로 적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지춘수(1971)은 ‘죯논, 븓늑니라’에 대한 이표기 ‘죯논, 븓늑니라’가 실제로는 /ㅅㄴ/이 [ㄴ니]로 비음화된 발음을 표기한 것으로 보았다. (43)에서 보듯이 ‘ㅅ’과 ‘ㄴ’은 같은 계열에서 완급 대립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ㅅ’의 완급 대립쌍인 ‘ㅅ’을 사용하여 비음화된 [ㄴ니] 발음을 표기하였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강길운(1992: 316)는 ‘죯-+ㄴ’, ‘넛-+ㄴ-+니’가 각각 ‘죯논’, ‘넛늑니’와 같이 표기되는 현상을 ‘ㅅ’[ㄷ]과 ‘ㅅ’[ㄷ]의 음운적 유사성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두 음의 유사성으로 인해 ‘손소→손조, 몸소→몸조’ 등에서는 ‘ㅅ > ㅅ’의 변화가 일어나고 ‘죯논’, ‘넛늑니’에서는 그 반대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본 것이다.

한편 백두현(2014)는 ‘ㅇ, ㄴ, ㅁ’의 지속성을 ‘緩’이라 하고 ‘ㄱ, ㄷ, ㅂ’의 폐쇄성을 ‘急’이라 표현한 것은 음성학적으로 타당하지만, ‘ㄱ’을 느리게 발음하면 ‘ㅇ’이 된다는 식의 관계 설정은 음성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속’의 종성 ‘ㄱ’을 아무리 느릿하게 발음하여도 ‘송’이 되지 않고, ‘숨’의 종성 ‘ㅁ’을 아무리 빠르게 발음하여도 ‘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43)의 설명이 음성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설명은 아닌 듯하다. 종성의 ‘ㄱ’은 원래 연구개가 폐쇄되고 아울러 비강으로 흐르는 기류 또한 차단되는 소리이다. 그런데 이 소리를 천천히 내기 원한다면 기류가 차단되지 않도록 어느 한쪽을 개방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개를 폐쇄하지 않고 계속 개방하거나 기류가 비강으로 흐르는 통로를 막지 않고 계속 열어 두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에는 연구개 폐쇄가 일어나지 않아 종성의 음가 자체가 실현되지 않는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연구개는 폐쇄되지만 기류가 비

---

으로는 다르지만, 실제 발음에서는 명확히 구별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다. 한편 허용(1957: 183)과 박태권(1964)는 종성 ‘ㅅ’과 ‘ㄷ’의 표기 구별이 발음의 차이보다는 어원적인 의식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강으로 계속 흐르면서 종성의 음가가 지속된다. 이때 실현되는 소리가 바로 [ŋ]이다.

(43)에서 ‘ㄱ’을 천천히 소리낸다는 것은 [k]를 불파음으로 발음했다가, 다시 말해 연구개와 비강의 통로를 모두 폐쇄했다가 다시 개방하여 소리를 느끼게 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k]를 발음할 때와 같은 상황에서 비강으로 통하는 통로를 열어 소리를 지속적으로 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렇게 하면 소리가 [k]로 실현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ŋ]이 된다.

‘ㅇ’을 급하게 소리 낸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ŋ]을 소리 내다가 기류를 급하게 차단하면 [k]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ŋ]을 발음할 때와 같은 상황에서 소리를 빨리 끝내기 위해 비강으로 흐르는 통로를 차단하면 그 소리가 바로 [k]로 실현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렇게 본다면 (43)의 설명은 비록 체계를 맞추기 위해 후음 ‘ㅇ’과 ‘ㅎ’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종성에서의 완급 차이를 실제적으로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백두현(2014)는 이때의 ‘완급’이 중국 성운학의 서촉(舒促)이라는 개념과 대응된다고 보았다. 즉, 한 음절이 모음이나 비음으로 끝나는 소리를 서성(舒聲)이라 하고 -b, -d, -g와 같은 받침으로 끝나는 소리를 촉성(促聲)이라 하는데, ‘종성해’의 ‘완급’ 설명이 이 ‘서촉’의 개념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결국 전청자로서 입성으로 분류된 종성 ‘ㅅ’의 음가는 외파음 [s]가 아닌 불파음 [t̚]인 것으로 귀결된다.

## 9. ‘ㄹ’과 ‘ㄴ’

현대국어의 유음은 초성에서는 탄설음 [l̥]로, 종성에서는 설측음 [l̪]로 실현된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소리이지만, 상보적 분포를 이루는 변이음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개별 음소가 아닌 하나의 음소로 인식된다.

훈민정음 표기에서도 ‘ㄹ’ 외에 유음의 음가를 담당하는 다른 문자가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대개 중세국어의 유음은 현대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훈민정음』의 종성해에서 다음과 같이 반설경음



‘ㄹ’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sup>42)</sup>

- (44) 반설음(반혓소리)에는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두 음이 있다. 그러나 운서의 자모는 오직 하나이며 또한 우리말에서도 비록 가볍고 무거움을 나누지 않지만 모두 음을 이룰 수 있다. 만약 갖추어 쓰고자 한다면 순경음(입술 가벼운소리)의 예에 따라 ‘ㅇ’을 ‘ㄹ’ 아래에 이어 쓰면 반설경음(반혓가벼운소리)이 되니 혀를 살짝 윗잇몸에 댄다. (半舌有輕重二音。然韻書字母唯一。且國語雖不分輕重。皆得成音。若欲備用。則依唇輕例。ㅇ連書ㄹ下。爲半舌輕音。舌乍附上腭。)〈훈민정음 해례 합자해〉

위와 관련하여 반설경음을 탄설음 [l]로 보고 반설중음을 설측음 [ɭ]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sup>43)</sup>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이승녕(1955)은 반설경음을 설측음 [ɭ]로 보고 반설중음을 탄설음 [l]로 보았으며, 소신애(2008)은 반설경음 ‘ㄹ’이 고유어 표기에 사용된 적이 없고 다른 문자와는 달리 유음의 경우에만 변이음을 문자로 구별할 리가 없으며 순경음의 음가에 비추어 볼 때 반설경음은 치조접근음 [ɭ] 또는 권설접근음 [ɭ]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존의 해석을 비판하였다.

소신애(2008)은 ‘ㄹ’은 우리말이 아닌 중국어음(동국정운식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해 제자된 것으로 보고, 20세기 초 육진 방언의 받침 ‘ㄹ’이 ‘r’로 전사된 점, ‘ㄹ고, ㅎ’과 같이 ㄹ계 겹받침이 음절 말에 온전하게 표기된 점 등을 근거로 중세국어 중성 ‘ㄹ’의 음가를 탄설음 [l]로 보았다.<sup>44)</sup>

그러나 (44)에서 운서의 자모가 하나然韻書字母唯一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반설경음을 중국어음 표기로 보기는 어렵다. 성운학의 분류에

42) 그동안 ‘몰애, 올아’와 같은 분철 표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성 ‘ㄹ’의 음가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었지만,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합자해’의 ‘반설중음’과 ‘반설경음’의 음가에 대해서만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43) 정인승(1940), 전몽수·홍기문(1949: 72), 김석득(1965), 김용경(1975: 48), 서영석(1981), 이성구(1985: 133), 이동화(2006: 114), 송기중(2014), 이현희 외(2014: 274) 등 대다수의 논의에서 이러한 해석을 하고 있다.

44) 소신애(2008)은 ‘ㄹ계 자음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는 두 자음이 모두 발음되었다는 음운론적인 해석을 이미 반영하는 것이어서 본고에서는 이를 ‘ㄹ계 겹받침’으로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따라 ‘ㅎ’과 같이 국어의 음소와 상관없는 문자를 만든 점을 감안할 때, 반설경음이 중국어음을 표기하기 위해 필요한 문자였다면 아마도 처음부터 초성 체계에 포함됐을 것이다.

또한 (44)의 문맥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반설경음과 반설중음의 구별이 중국음이 아닌 우리말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운서의 자모에 대해서는 설음이 오직 하나唯—라고 하였는데, 오직 하나라는 기술은 객관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인위적으로 둘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국어에 대해서는 비록 가볍고 무거움을 나누지 않는다雖不分輕重했는데, 이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인식이나 태도의 문제를 기술한 것이다. 사람들이 비록 구별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둘로 나눌 수도 있는 것이다. 즉, 반설경음에 대한 설명은 보통은 구별하지 않지만 굳이 구별해서 쓰고 싶으면 ‘ㄹ’처럼 쓰라는 설명으로, 이는 우리말에서 변이음 관계에 있는 탄설음 [ㄹ]과 설측음 [ㄴ]의 관계를 잘 보여 주는 것이다.

이처럼 ‘ㄹ’ 표기는 정식 문자 표기가 아니라 특별 표기이기 때문에 고유어에서 ‘ㄹ’이 사용된 적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유음의 경우에만 변이음을 구별하는 특이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

또한 ‘몹고, 흙’과 같은 ㄹ계 겹받침의 존재가 중성 ‘ㄹ’이 탄설음 [ㄹ]로 외파되었다는 증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중세 문헌에서 다음과 같이 비음뿐만 아니라 파열음까지도 음절 말 위치에서 병서 표기된 예들이 있기 때문이다.

- (45) 앓고(얹 + -고), 읊디(읊- + -디)  
 𪎐鈞, 𪎐璣, 𪎐荊, 𪎐價

김성규(1996)은 위와 같은 예들에서 겹받침이 모두 발음된 것으로 보았지만, 이는 중세국어에서 유음은 물론 비음과 파열음까지도 모두 외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렇다면 음절 말에서 유기음이 얼마든지 발음될 수 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굳이 ‘발’을 ‘받’으로 적고 ‘숲’을 ‘습’으로 적는 8중성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겹받침의 존재는 외파

에 대한 증거가 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크게 겹받침의 존재 역시 ‘ㄹ’이 음절말에서 탄설음 [l̥]로 외파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가 어렵다.

#### IV. 마무리

지금까지 훈민정음의 자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고는 훈민정음의 자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먼저, 자음과 관련된 『훈민정음』의 기술 내용에 대해 그동안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밝혔다.

다음으로 『훈민정음』에서 다룬 개별 자음에 대한 해석으로서 주로 음가 문제에 초점을 두어 각자병서, 합용병서, ‘ㅁ’, ‘ㄴ’, ‘ㅇ’, ‘ㅇ’, ‘ㅅ, ㅆ, ㅈ’, 종성 ‘ㅅ’, ‘ㄹ’ 및 ‘ㄴ’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각각의 자음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그동안 축적된 연구의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이것들을 다 섭렵하지 못하고 다양한 관점들을 다 소개하지 못한 면이 있다. 그러나 되도록 많은 성과들을 검토하고 주로 『훈민정음』의 기술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였다.

『훈민정음』의 각 자음의 음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통설이 형성되어 있지만,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검토하지 못한 연구 성과들도 많이 있다. 본고는 되도록 이러한 내용들을 균형 있게 다루려고 노력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훈민정음』의 자음에 대한 연구가 이미 완료되지 않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

최근 『훈민정음』의 자음에 대한 연구가 다소 답보 상태에 빠진 듯하나, 아직도 『훈민정음』의 자음에 대해 우리가 연구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 앞으로 『훈민정음』의 자음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중세국어의 자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강규선(2001), 『훈민정음 연구』, 보고서.
- 강길운(1955), 「초성병서고」, 『국어국문학』 13, 국어국문학회, 93~136.
- 강길운(1992), 『훈민정음과 음운체계』, 형설출판사.
- 강길운(1993), 『국어사정설』, 형설출판사.
- 강신항(1980), 『계림유사 「고려방언」 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강신항(1987),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강신항(2006), 「『훈민정음』 「해례」의 설명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 『국어사 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태학사, 303~331.
- 강신항(2009), 『훈민정음 창제와 연구사』, 경진.
- 강진식(1975), 「훈민정음 자모체계의 연구: 제자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연구』 2, 43~79.
- 권인환(1998), 『조선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태학사.
- 권재선(1977), 「함용병서의 음가고」, 『영남 어문학』 4, 영남 어문학회, 43~68.
- 권재선(1979), 『병서연구』, 수도문화사.
- 김경아(1991), 「중세국어 후음에 대한 일고찰: 순정음 병의 변화와 관련하여」,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망』, 108~127, 민음사.
- 김동소(1996), 「중세 한국어의 종합적 연구: 표기법과 음운 체계」, 『한글』 231, 한글학회, 5~42.
- 김동소(1998), 『한국어 변천사』, 형설출판사.
- 김동소(2002), 『중세 한국어 개설』, 대구가톨릭대학교출판부.
- 김동소(2003), 「한국어 음운사 연구에서의 몇 가지 주요 논점」, 『문학과 언어』 25, 문학과언어연구회, 1~18.
- 김동소(2007), 『한국어의 역사』, 정림사.
- 김무립(2004), 『국어의 역사』, 한국문화사.
- 김무식(1992a), 「중세 국어 후음 ‘ㅇ’에 대한 일고찰: 주로 음가추정 및 음운설정 여부를 중심으로」, 『어문학』 53, 한국어문학회, 65~91.
- 김무식(1992b), 「중세 국어 후음 ‘ㅇ ㅁ ㅂ ㅅ’에 대한 연구: 주로 음가추정 및 후음계열의 상관성에 대하여」, 『문학과 언어』 13, 문학과 언어연구회, 51~73.
- 김민수(1952), 「병서 해석에 대한 고찰: 병서론 연구 (일)」, 『국어국문학』 2,

5~6.

김민수(1953), 「각자병서 음가론: 병서론 연구(이)」, 『국어국문학』 4, 국어국문학회, 4~12.

김민수(1955), 「합용병서 음가론: 병서론 연구 3」, 『국어국문학』 13, 국어국문학회, 10~44.

김민수(1959), 『주해훈민정음』(수정판), 통문관.

김민수(1987), 「국어표기법논쟁사」, 『국어생활』 9, 국어연구소, 6~14.

김민수(1994), 「훈민정음 반포와 팔종성의 문제」, 『어문연구』 81·8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72~275.

김상태(2012), 「훈민정음 제자 원리와 한자 육서의 자소론적 연구」, 『국어학』 63, 국어학회, 105~128.

김석득(1965), 「소실자운(Graphemes)고 - 중세 ㄷ · ㅌ · ㄸ · ㅍ · ㅍ · ㅍ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13,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67~96.

김성규(1996), 「중세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1』, 국립국어연구원.

김용경(1975), 『국어학논집』, 형설출판사.

김완진(1964), 「중세국어 이중모음의 음운론적 해석에 대하여」, 『학술원 논문집 (인문·사회과학 편)』 4, 대한민국학술원, 49~66. (김완진(1971)에 재수록)

김완진(1971), 『국어음운체계의 연구』 일조각.

김완진(1972), 「세종대의 어문정책에 대한 연구: 훈민정음을 위요한 수삼의 과제」, 『성곡논총』 3, 성곡학술문화재단, 185~215.

김완진(1975), 「훈민정음 자음자와 가획의 원리」, 『어문연구』 7·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86~194.

김완진(1983), 「훈민정음 제자 경위에 대한 새 고찰」, 『김철준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지식산업사, 353~366.

김완진(1984), 「훈민정음 창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 5,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19.1

김용태(1961), 『빙음발달 및 소실의 시대에 대한 시론』, 마산대학문화회.

김유범(2001),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형태론과 음운론』,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김유범(2007)에 재수록)

김유범(2007), 『중세국어 문법형태소의 형태론과 음운론』, 월인.

김유범(2009), 「텍스트 구성 차원에서 바라본 해례본 『훈민정음』 기술 내용의

- 몇 문제」, 『한국어학』 43, 한국어학회, 105~124.
- 김윤경(1935), 「훈민정음에 나타난 철자법 규정」, 『한글』 27, 한글학회, 420~423.
- 김윤주(1984), 「훈민정음 자음자와 가획의 원리」, 『한성어문학』 3, 한성어문학회, 87~98.
- 김태완(2005), 「《훈민정음》과 중국 운서와의 분합관계: 《훈민정음》의 초성을 중심으로」, 『중국인문과학』 31, 중국인문학회, 19~35.
- 김필규(1976), 「15세기 국어의 「ㄷ, ㅅ, ㅈ」 종성고」, 『수련어문논집』 4, 수련어문학회, 165~179.
- 김한별(2012), 『순경음 ‘ㅁ’에 대한 통시적 연구: ‘ㅁ’ 약화 규칙의 어휘 확산을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 김형규(1948), 「봉음고」, 『조선교육』 2-7, 조선교육연구회, 59~67.
- 김형규(1957), 『국어사: 국어사 급 국어학사』, 백영사.
- 김형규(1962), 『국어사연구』, 일조각.
- 김형주(1986), 「국어 어두자음군의 형성과 음가 연구」, 『석당논총』 12, 동아대 석당전통문화연구원, 157~184.
- 김형주(1993), 『국어사 연구: 어두자음군』, 동아대학교출판부.
- 남광우(1959), 「봉 ㅈ론고」, 『논문집』 4, 중앙대, 115~140. (남광우(1962)에 재수록)
- 남광우(1961), 「「:웃보:니 :웃보:리 :웃:비」 연구」, 『국어국문학』 24, 국어국문학회, 22~28.
- 남광우(1962), 『국어학논문집』, 일우사.
- 럼종률·김영환(1982), 『《훈민정음》에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럼종률(1992), 『조선말력사문법』,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1. 역락)
- 문효근(1978), 「훈민정음의 ‘ㅇ’과 ‘ㅇㅇ’ 음가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한글』 162, 한글학회, 111~141.
- 문효근(1986), 「《훈민정음》의 “중성부용초상”의 이해」, 『한글』 193, 한글학회, 139~162.
- 박병채(1957), 「파열음고: 훈민정음 창제의 음성학적 고찰」, 『국어국문학』 17, 국어국문학회, 77~93.
- 박병채(1958), 「후두음고: ㅇ음을 중심한 음성학적 고찰」, 『어문논집』 2-1, 안암어문학회, 8~24.

- 박승빈(1931), 『조선어학강의요지』, 보성전문학교.
- 박종국(1996), 『한국어발달사』, 문지사.
- 박종국(2007), 『훈민정음종합연구』, 세종학연구원.
- 박지홍(1979), 「한문본 훈민정음의 번역에 대하여」, 『한글』 164, 629~654. (박지홍(1984)에 재수록)
- 박지홍(1984), 『풀이한 훈민정음 - 연구·주석』, 과학사.
- 박창원(1984), 「중세 국어의 음절말 자음 체계」, 『국어학』 13, 국어학회, 171~197.
- 박창원(1991), 『국어자음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창원(1996b)에 재수록)
- 박창원(1993), 「훈민정음 제자의 ‘理’에 대한 고찰」,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지성사, 613~641. (송기중 외 편(2003), 박창원(1996b), 박창원(2005)에 재수록)
- 박창원(1995), 「15세기 국어 자음체계의 변화와 통시적 성격(2): 치음의 변화를 중심으로」, 『애산학보』 16, 애산학회, 69~102. (박창원(1996b)에 재수록)
- 박창원(1996a), 「『欲字初發聲』 재론」, 『이기문 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신구문화사, 287~312. (박창원(1996b)에 재수록)
- 박창원(1996b), 『중세국어 자음 연구』, 한국문화사.
- 박창원(2005), 『훈민정음』(100대 한글 문화유산-1), 신구문화사.
- 박태권(1964), 「입성중성고: 어학사적 입장에서」, 『논문집』 5, 부산대학교, 27~40.
- 박태권(1968), 「『국어의 받침 표기』에 대하여: ㄷ, ㅅ을 중심으로」, 『낙산 김정한선생 송수기념논문집』, 태화출판사, 189~203.
- 박형우(2008), 「訓民正音 ‘象形而字倣古篆’의 의미」, 『한민족어문학』 53, 한민족어문학회, 153~180.
- 백두현(2009), 「『훈민정음』 해례본의 텍스트 구조 연구」, 『국어학』 54, 국어학회, 75~107.
- 백두현(2012), 「융합성의 관점에서 본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어문론총』 57, 한국문학언어학회, 115~156.
- 백두현(2014), 「『훈민정음』 해례의 제자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어문학』 123, 한국어문학회, 39~66.
- 백두현(2016), 「훈민정음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와 그 의미」, 『어문론총』 67, 한국문학언어학회, 9~38.

- 서병국(1984), 『신강 훈민정음』, 학문사.
- 서영석(1981), 「중세국어의 후음연구」, 『한국문학연구』 3,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53~272.
- 서정범(1964), 「십오세기 국어의 표기법연구」, 『논문집』 3, 경희대, 9~42. (서정범(1975)에 재수록)
- 서정범(1975), 『현실음의 국어사적연구』, 범우사.
- 소신애(2008), 「중세 국어 음절말 유음의 음가와 그 변화 - 방언 자료와 문헌 자료에 근거하여」, 『국어학』 53, 35~64.
- 소신애(2012a), 「국어의  $\Delta > \Sigma$  변화에 대하여」, 『진단학보』 114, 진단학회, 51~84.
- 소신애(2012b), 「점진적 음변화로서의  $\Sigma > \Delta$ : 방언 반사형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62, 45~83.
- 송기중 외 편(2003), 『한국의 문자와 문자 연구』, 집문당.
- 송기중(2008), 「자음체계의 모형(모델)과 자음 연구」 『이승녕, 현대국어학의 개척자』, 태학사, 787~813.
- 송기중(2014), 「훈민정음 해례의 음소: 음성학」, 『한국어사 연구』, 태학사, 59~94.
- 송철의(1987), 「십오세기 국어의 표기법에 대한 음운론적고찰: 훈민정음 창제 초기 문헌을 중심으로」, 『국어학』 16, 국어학회, 325~360.
- 신승용(2006), 「치음 /ㅅ/, /ㅆ/의 조음위치 이동 원인과 변화 과정」, 『국어 제어문』 36, 국제어문학회, 117~144.
- 신승용(2007), 「‘-ㅅㅅ+평음’과 ‘-ㄷ+각자병서’, ‘-ㄷ+평음’ 재론」, 『동아인문학』 12, 동아인문학회, 411~438.
- 안명철(2006), 「훈민정음 제자 원리와 육서」, 『우리말 글』 38, 우리말글학회, 43~58.
- 안병희(1990),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에 대하여」, 『강신항 교수 회갑기념 국어학 논문집』, 태학사, 135~145. (안병희(1992, 2007)에 재수록)
- 안병희(1991), 「월인천강지곡의 교정에 대하여」, 『석정 이승욱 선생 회갑기념논총』, 원일사, 169~177.
- 안병희(1992), 『국어사 자료 연구』, 문학과지성사.
- 안병희(2007), 『훈민정음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양제철(1974), 『국어의 음성학적 연구』, 언문연구회.



- 오정란(1988), 『경음의 국어사적 연구』, 한신문화사.
- 오정란(1994), 「훈민정음 초성 체계의 정밀전사의식」, 『인문사회과학논문집』 23, 광운대학교, 9~23.
- 우민섭(1981), 「경음 표기법 연구: 각자병서의 음가를 중심으로」, 『전주대학 논문집』 10, 전주대학교, 107~128.
- 우민섭(1988), 『15세기 국어의 초성병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우민섭(2000)에 재수록)
- 우민섭(2000), 『중세국어음운연구』, 전주대학교출판부.
- 유용호(1946), 「조선어순경음에관한연구: 특수순경음「ㄹ」의음가급변천에관하여」, 『민족문화』 2, 민족문화연구소, 36~69.
- 유창균·강신항(1961), 『국어학사』, 민중서관.
- 유창균(1966), 「‘象形而字倣古篆’에 대하여」, 『진단학보』 29·30, 진단학회, 371~390.
- 유창돈(1958), 「언문지 전고」, 『논문집』 1, 경희대, 121~244.
- 유창돈(1961), 『국어변천사』, 통문관.
- 유효홍(2010), 「순경음 ‘ㄹ’의 중성 표기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10, 국어사학회, 233~269.
- 육효창(1996), 『중세국어 치음의 음가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 이기문(1955), 「어두 자음군의 생성 및 발달에 대하여」, 『진단학보』 17, 진단학회, 187~258.
- 이기문(1961), 『국어사개설』, 민중서관.
- 이기문(1962), 「중세국어의 특수 어간 교체에 대하여」, 『진단학보』 23, 진단학회, 119~153.
- 이기문(1963), 『국어표기법의 역사적연구』, 한국연구원.
- 이기문(1972a), 『국어사개설』(개정판), 탑출판사.
- 이기문(1972b), 『국어음운사연구』, 탑출판사.
- 이기문(1998), 『국어사개설』(신정판), 태학사.
- 이극로(1932), 「훈민정음의 독특한 성음관찰」, 『한글』 5, 한글학회, 390~393.
- 이근규(1987), 「정음 창제와 문헌 표기의 정립에 대하여」, 『언어』 8, 충남대학교 어학연구소, 103~121.
- 이근수(1995), 『훈민정음신연구』, 보고서.
- 이동립(1963), 「‘훈민정음’의 제자상 형성 문제」, 『무애양주동박사화탄기념논문

- 집』, 탐구당, 313~336.
- 이동립(1964), 「어두 어말 복자음 형성급 축음 「ㄷ」과 ㄱ·ㅅ(ㄷ)·ㅂ 관계」, 『국어국문학논집』 5, 동국대 국어국문학부, 3~18.
- 이동석(2000), 「르탈락 현상의 적용 환경과 발생 및 소멸 시기에 대하여」, 『한국어학』 12, 한국어학회, 237~259.
- 이동석(2004), 「「계림유사」를 통해서 본 ‘ㄴ’계 합용병서와 ‘ㄴ’」, 『국어사연구』 4, 국어사학회, 235~253.
- 이동석(2006), 「「조선관역어」의 첨가자 ‘思’의 음가에 대하여」, 『국어사와 한자음』, 박이정, 373~395.
- 이동석(2008), 「음운사와 어원」, 『한국어학』 39, 한국어학회, 79~109.
- 이동석(2010), 「‘ㄴ’ 포함 어휘의 형태론적 분석」, 『국어사연구』 11, 국어사학회, 221~249.
- 이동석(2013a), 「‘ㄴ’의 음가론」, 『국어사연구』 17, 국어사학회, 71~118.
- 이동석(2013b), 「‘수비’의 이표기 연구」, 『한국어학』 61, 한국어학회, 201~232.
- 이동석(2014), 「국어사에서의 기술 문법과 학교 문법: 〈독서와 문법 II〉 교과서를 중심으로」, 『국어학』 69, 국어학회, 283~329.
- 이동화(2006), 『훈민정음과 중세국어』, 문창사.
- 이문규(1995), 「합용병서의 음가에 대한 연구사적 고찰」, 『문학과 언어』 16, 문학과 언어연구회, 81~102.
- 이성구(1984), 『훈민정음해례의 철학사상에 관한 연구: 역리와 성리학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성구(1985)에 재수록)
- 이성구(1985), 『훈민정음연구』, 동문사.
- 이성구(1994), 「《훈민정음해례》의 취상과 취의」, 『논문집』 18, 명지실업전문대학, 1~17.
- 이승녕(1948), 「조선어학개설」, 『조선교육』 2-7, 조선교육연구회, 50~58.
- 이승녕(1954), 「순음고 - 특히 순경음 『ㄴ』를 중심으로 하여」, 『서울대학교 논문집』(인문사회과학) 1, 서울대학교, 40~76. (이승녕(1988)에 재수록)
- 이승녕(1955), 「이조 초기의 ㄴ, ㄹ음 표기문제」, 『용재 백낙준박사 환갑기념 국학논총』 사상계사. (이승녕(1988)에 재수록)
- 이승녕(1956), 「ㄷ음고」, 『서울대학교 논문집』(인문사회과학) 3, 서울대학교, 51~235. (이승녕(1988)에 재수록)
- 이승녕(1961), 『중세국어문법: 15세기어를 주로 하여』, 을유문화사.

- 이승녕(1988), 『이승녕 국어학선집 2음운편 III』, 민음사.
- 이익섭(2006), 「국어 표기법의 두 원리」, 『국어사 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태학사, 333~345.
- 이은정(1986), 「8종성에서의 ‘-ㅅ’에 대하여」, 『한글』 192, 한글학회, 3~18.
- 이정호(1975), 『훈민정음의 구조원리: 그 역학적 연구』, 아세아문화사.
- 이현희(1997), 「훈민정음」, 『새국어생활』 제7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237~253.
- 이현희 외 12인(2014), 『『훈민정음』의 한 이해』, 역락.
- 임용기(1992), 「『훈민정음』에 나타난 삼분법의 형성 과정에 대하여」, 『세종학 연구』 7, 세종대왕기념사업회, 73~97.
- 임용기(1996), 「삼분법의 형성 배경과 <훈민정음>의 성격」, 『한글』 233, 한글학회, 5~68.
- 임용기(2003), 「국어학 연구의 성격과 태도에 대한 반성」, 『인문언어』 5, 국제언어인문학회, 55~74.
- 임용기(2010), 「초성, 중성, 종성의 자질과 훈민정음」, 『국어학』 57, 국어학회, 75~106.
- 장 석(2014), 「문헌으로 본 日母 한자음의 변화」, 『한중인문학연구』 45, 한중인문학회, 343~366.
- 장 석(2016a), 「△-병의 연쇄로 본 △의 음가」, 『구결연구』 36, 구결학회, 203~235.
- 장 석(2016b),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의 음운 자격」, 『민족문화연구』 7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403~430.
- 장영길(1986), 「15세기 국어의 자음체계 연구: 그 음소설정 문제를 중심으로」, 『동악어문논집』 21, 동악어문학회, 145~188.
- 장영길(2001), 「훈민정음 자소체계와 음성자질체계의 조응 관계」, 『동악어문논집』 37, 동악어문학회, 1~22.
- 장영길(2005), 「훈민정음 제자상의 몇 가지 문제」, 『국제언어문학』 12, 국제언어문학회, 35~47.
- 장윤희(2013), 「훈민정음 제자원리의 위계성과 이체」, 『어문연구』 41-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7~56.
- 장향실(2003), 「중세국어시기 고유어 표기에 쓰인 병의 음가에 대하여」, 『어문논집』 48, 민족어문학회, 65~91. (장향실(2008)에 재수록)
- 장향실(2008), 『국어사 자료와 음운 연구』, 보고서.

- 전몽수·홍기문(1949), 『훈민정음 역해』, 조선어문연구회.
- 정 광(2003), 「국어학의 언어학적 방법: 연구사적 이해를 중심으로」, 『인문언어』 5, 국제언어인문학회, 37~53.
- 정우영(1999), 「15세기 국어 표기법의 성립과 개정에 관하여」, 『동국어문론집』 8, 동국대, 65~83.
- 정우영(2005), 「국어 표기법의 변화와 그 해석: 15세기 관관 한글 문헌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26, 한국어학회, 293~326.
- 정우영(2007), 「순경음비음(빙)의 연구사적 검토」, 『국어사연구』 7, 국어사학회, 133~163.
- 정우영(2014), 「《훈민정음》 해례본의 ‘예의편’ 구조와 ‘해례편’과의 상관관계」, 『국어학』 72, 국어학회, 103~153.
- 정인승(1940), 「고본 훈민정음의 연구」, 『한글』 제8권 9호, 조선어학회, 3~16.
- 조규태(1998), 「여린 비읍(빙)에 대하여」, 『한글』 240·241, 한글학회, 89~124.  
(조규태(2000)에 재수록)
- 조규태(2000), 『번역하고 풀이한 훈민정음』, 한국문화사.
- 조운성(1988), 『한국 한자음 표기에 쓰인 「ㄷ」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조운성(2013), 「‘ㄷ’의 연구 성과와 과제」, 『국어사연구』 17, 국어사학회, 119~132.
- 지춘수(1964), 「중성팔자제한에 있어서 「ㄷ, ㅌ」 설정에 대한 고찰」, 『국어국문학』 27, 국어국문학회, 145~165.
- 지춘수(1971), 「ㅌ 중성 재론」, 『한글』 147, 한글학회, 121~154.
- 지춘수(1992), 「중세국어 표기법의 전개와 검토」, 『국어표기법의 전개와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81.
- 지춘수(2006), 「국어 표기법의 전개와 변천」, 『국어사 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태학사, 347~383.
- 차재은(2003), 「15세기 우리말의 후음 관련 문제들」, 『한국어학』 20, 한국어학회, 241~263.
- 최범훈(1981), 『중세한국어문법론』, 이우출판사.
- 최세화(1983), 「조성 함용병서에 대한 두 가지 단상」, 『동악어문학』 17, 동악어문학회, 145~154.
- 최세화(1986), 「입성과 ‘ㄷ-ㅌ’의 완급상대 소고」, 『시원 김기동 박사 회갑기념』

- 논문집』, 교학사, 747~757. (최세화(1987)에 재수록)
- 최세화(1987), 『국어학논고』, 동국대학교출판부.
- 최세화(1988), 「중세국어의 치찰음고」, 『허당이동림박사장년퇴임기념논총』, 집문당, 3~16.
- 최호섭(2000), 『중세국어 병에 대한 연구: 병의 음성적 실재와 음 변화를 중심으로』, 경남대 석사학위논문.
- 허 웅(1957), 『국어음운론』, 정음사.
- 허 웅(1965), 『국어음운학』(개고신판), 정음사.
- 홍기문(1946a), 『정음발달사(상권)』, 서울신문사.
- 홍기문(1946b), 『정음발달사(하권)』, 서울신문사.
- 람스테트(G. J. Ramstedt)(1939), A Korean Grammar, Suomalais-ugrilainen Seura. (『역대한국문법대계』 2부 5책, 1979, 탑출판사)
- 주효농(朱曉農)(2003), 「從群母論濁聲和摩擦: 實驗音韻學在漢語音韻學中的實驗」, 『語言研究』 23-2, 華中科技大學中國語言文字研究所, 5~18.
- 오구라(小倉進平)(1923), 『國語及朝鮮語 發音概說』, 近澤印刷所出版部.
- 오구라(小倉進平)(1953), 「朝鮮語の喉頭破裂音」, 『言語研究』 22·23, 日本言語学会, 1~20.
- 마에마(前間恭作)(1909), 『韓語通』, 丸善. (『역대한국문법대계』 2부 13책, 1979, 탑출판사)
- 고노(河野六郎)(1935), 『朝鮮方言學試攷-‘鋏’語考』, 東都書籍.